

한국융합인문학회 창립총회 및 창립학술대회 근대 한국 사회구조에 대한 융합적 통찰

- 일시 : 2013년 11월 2일 (토), 13:00~17:00
- 장소 :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301호
- 주최 : 한국융합인문학회 창립준비위원회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한국융합인문학회 창립총회 및 창립학술대회

[세부일정]

- 일시 : 2013년 11월 2일 (토), 13:00~17:00
- 장소 : 고려대 운초우선교육관 301호

제1부 창립총회 [13:00~13:50]

- 의장 :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양윤모 (발기인 대표)
 - 사회 : 창립준비위원회 간사 박보영
1. 성원보고_ 창립준비위원회 간사 박보영
 2. 창립총회 개회선언_ 창립준비위원장 양윤모
 3. 창립준비위원장 인사_ 창립준비위원장 양윤모
 4. 창립 경과보고_ 창립준비위원회 간사 박보영
 5. 안건 심의 및 의결_ 창립준비위원장 양윤모 / 간사 박보영
 - 제1호 안건 : 회칙(안)에 대한 토의 및 승인
 - 제2호 안건 : 학회장 선출
 - 제3호 안건 : 회장단 임명제청 및 승인
 - 제4호 안건 : 이사 임명제청 및 승인
 6. 기타 안건 토의_ 창립준비위원장 양윤모
 7. 폐회선언_ 창립준비위원장 양윤모
 8. 임명장 수여_ 창립준비위원장 양윤모 및 학회장 당선자
 9. 초대 학회장 인사말 및 운영위원회 소개_ 학회장 당선자

제2부 창립학술대회 | 근대 한국 사회구조에 대한 융합적 통찰 [14:00-17:00]

시간	구분	내용
14:00-14:20	기조발제	융합학,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정창권 (고려대)
14:30-15:00	주제발표 1	산업화 시대 육체적 힘의 의미 • 발표 : 양윤모 (극동대) • 사회 : 소인호 (청주대) • 토론 : 고지혜 (인하공전)
15:00-15:30	주제발표 2	폐쇄적 사회체제에 대한 우화적 형상화 : 영화 <설국열차>에 대한 정치사회적 분석 • 발표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 사회 : 소인호 (청주대) • 토론 : 권진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15:30-15:40	휴 식	
15:40-16:10	주제발표 3	사회복지 클라이언트(client)의 주체화와 영화 <원득이> : 푸코의 권력이론을 중심으로 • 발표 : 권미영 (중앙대 대학원) · 박보영 (극동대) • 사회 : 이소영 (한중대) • 토론 : 조윤경 (한국장애인개발원)
16:10-16:40	자유발표	한국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안 :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 발표 : 이장욱 (충청대) • 사회 : 이소영 (한중대) • 토론 : 박승민 (고려대)
16:40-17:00	종합토론 및 폐회식	

[목 차]

제1부 창립총회 | 자료

- 1. 학회창립 경과에 관한 자료 7
- 2. 회칙(안) 15
- 3. 회장단 후보자 및 이사진 후보자 소개 21

제2부 창립학술대회 | 근대 한국 사회구조에 대한 융합적 통찰

■ 기초발제

- 융합학, 어떻게 할 것인가 25
- ▶ 정창권(고려대)

■ 주제발표 1

- 산업화시대 육체적 힘의 의미 31
- ▶ 양윤모(극동대)

■ 주제발표 2

- 폐쇄적 사회체제에 대한 우화적 형상화 : 영화 <설국열차>에 대한 정치사회적 분석 43
- ▶ 송시형(국제사이버대)

■ 주제발표 3

- 사회복지 클라이언트(client)의 주체화와 영화 <완득이> : 푸코의 권력이론을 중심으로 57
- ▶ 권미영(중앙대 대학원) · 박보영(극동대)

■ 자유발표

- 한국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안 :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71
- ▶ 이장욱(충청대)

제1부 창립총회

총회자료

(가칭)한국융합인문학회 발기인 명단

- 아래의 발기인들이 하기와 같이 발기모임을 가짐.
- 일시 : 2013년 2월 1일, 오후 6시
- 장소 : 고려대 대학원 도서관 401호
- 내용 : (가칭)한국융합인문학회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발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서 명
1	권진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원	1974년 10월 1일	권진욱
2	김근면	서울여자간호대 교수	1971년 7월 28일	김근면
3	박보영	극동대 교수	1977년 4월 7일	박보영
4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교수	1977년 9월 7일	송시형
5	양윤모	극동대 교수	1967년 12월 12일	양윤모
6	정기봉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81년 2월 28일	정기봉
7	정재림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1973년 9월 2일	정재림
8	조윤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	1974년 5월 30일	조윤경
9	조은숙	춘천교대 교수	1969년 1월 20일	조은숙

*주 : 이상 가나다순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ence Humanities

창립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일자 : 2013년 3월 29일, 19:00

*장소 : 고려대 대학원 103호

*참석 : 김근면, 박보영, 양윤모, 정기봉, 정재립, 조윤경 (이상 가나다순)

[안건 1] 학회 회칙(안)

- 학회 회칙(안) 검토
- 별첨자료 참조

Handwritten signature

[안건 2] 학회 집행부(안)

1) 회장단 후보

- 회장 후보 : 청주대 국어국문학과 소인호 교수
- 부회장 후보 : 극동대 교양학부 양윤모 교수
- 부회장 후보 : 한중대 사회복지학과 이소영 교수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2) 집행부 인선(안)

- 구체적 인선(안)은 제2차 회의에 한다.
- 집행부 직제(안)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총무위원장, 기획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연구위원장, 교육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안건 3] 기 타

- 제2차 회의 일자 및 장소
- 기타 토의 안건







Handwritten signature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ence Humanities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13년 3월 29일

한국융합인문학회 창립위원회	위원장	양윤모	
	위원	김근면	
	위원	정기봉	
	위원	정재림	
	위원	조윤경	
	간사	박보영	



 기봉
 영경
 보영
 경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ence Humanities

창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일자 : 2013년 6월 28일, 19:00

*장소 : 고려대 대학원 102호

*참석 : 박보영, 소인회회장 후보자, 송시형, 양윤모, 이소영고문 후보자, 정기봉, 정재림, 조윤경 (이상 가나다순)

*불참 : 권진욱, 김근면, 조은숙 (이상 가나다순)

[안건 1] 학회 회칙(안) 확정

- 학회 회칙(안) 검토 및 확정
- 별첨자료 참조

송

정

[안건 2] 학회 집행부(안) 확정

1) 회장단 후보자 확정

- 회장 후보자 : 청주대 국어국문학과 소인호 교수
- 부회장 후보자 : 극동대 교양학부 양윤모 교수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
- 고문 후보자 : 한중대 사회복지학과 이소영 교수
- 감사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봉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2) 집행부 인선(안) 확정

- 총무이사 : 송시형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 기획이사 : 정재림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 편집이사 : 박보영 (창립준비위원회 감사)
- 학술연구이사 : 김근면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 구두 위임 및 동의
- 교육이사 : 권진욱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 구두 위임 및 동의
- 대외협력이사 : 조윤경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송

[안건 3] 창립총회 및 창립학술대회

- 일자 및 장소
- 창립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발제자·발표자
- 행사준비 업무 및 비용 분담

[안건 4] 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 등재지 제도 폐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ence Humanities









- 학회의 대응방안 : 하기의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임.
 - (1) All-in 전략 : 영문학술지
 - ✓(2) Two-track 전략 : 영문학술지 + 국문학술지
- 학술지 발간 횟수 및 시기

[안건 5기 타

- 제3차 회의 일자 및 장소
- 기타 토의 안건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13년 6월 28일

한국융합인문학회 창립위원회	위원장 양윤모	
	위원 송시형	
	위원 정기봉	
	위원 정재림	
	위원 조윤경	
	간사 박보영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장단	회장 소인호	
후보자	고문 이소영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ence Humanities

창립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 *일자 : 2013년 9월 27일, 18:30
- *장소 : 고려대 대학원 103호
- *참석 : 김근면, 박보영, 소인호(회장 후보자), 송시형, 양윤모, 이소영(고문 후보자), 정기봉, 조윤경 (이상 가나다순)
- *불참 : 권진욱, 정재림, 조은숙 (이상 가나다순)

[안건 1] 학회 집행부 추가 인선안 및 변경안

- 1) 집행부 추가 인선안
 - 박승민 박사 (현 고려대 강사)
 - 고려대 학사 및 석사 - 영국 LSE 석사 - 영국 Oxford U. 박사
 - 교육이사 추천
- 2) 집행부 인선 변경안
 - 박보영 : 편집이사 → 국문편집이사
 - 조윤경 : 대외협력이사 → 국제편집이사
 - 권진욱 : 교육이사 → 대외협력이사

이건

박 :

[안건 2] 창립총회 및 창립학술대회 일정 확정

- 일자 : 2013년 11월 2일 (토), 오후 1시~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사범대 신관), 301호
- 기타 : ① 창립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발표자·토론자 선정 → 10/26 (토) 발표할 바깥
- ② 행사준비 업무 및 비용 분담
 - ↳ 정재림 위원
 - ↳ 위원 1인당 10만원 / 회장등록 1만원

이건

[안건 3] 한국연구재단 출장 건 보고 : 스코퍼스 등재를 위한 특별세미나

- 내용 : 한국연구재단 <스코퍼스 등재를 위한 특별세미나>
- 일시 : 2013년 8월 30일 (토), 오후 2:20 ~ 5:10
- 장소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 참여 : 권진욱 (창립준비위 부위원장), 박보영 (창립준비위 간사)
- 보고 : 향후 스코퍼스 등재를 위해 본 학회의 영문국제학술지 발간 및 온라인 저널 서비스 긴요하게 요구됨.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ence Humanities

[안건 4] 학술지 발간 사업 대행업체 선정 건

- 업체명 : (주)코리아스칼라
- 서비스 : 학회 홈페이지 제작, 학회 저널 홈페이지 제작, 논문투고 시스템, DOI 발급 및 DB 서비스
- 비 용 : ① 저널(영문/국문) 홈페이지 각 50만원
 ② 학회(국문) 홈페이지 70만원 ≡ 영문 홈페이지는 국문 홈페이지 내 간략 소개.
 ③ 홈페이지(국문저널, 영문저널, 학회) 유지보수비 월 10만원
 ④ DOI 발급 ≡ 연회비 업체부담, 논문 1편당 1달러(年청구)
- 비 고 : 상기 비용은 일괄계약(DB 저작권 연동)시 가격임. 그렇지 않을 경우엔 홈페이지 별로 20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됨.

[안건 5] 기타

- 기타 토의 안건
- 간서명자 선정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13년 9월 27일

한국융합인문학회 창립위원회 위원장 양 윤 모 (서명)

위 원 김 근 먼 (서명)

위 원 송 시 형 (서명)

위 원 정 기 봉 (서명)

위 원 조 윤 경 (서명)

간 사 박 보 영 (서명)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장단 회 장 소 인 호 (서명)

후보자 고 문 이 소 영 (서명)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칙

제정 : 2013.11.02.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융합인문학회(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제 사항을 연구하고, 그에 관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인본주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본회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제간 연구와 융복합 연구를 지향하고 수행한다. 이외에 본회는 제 활동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기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있는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학술대회와 강연회, 심포지엄 등의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 (기구) 본회는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과 제4조의 사업들을 위하여 다음의 의결·심의·집행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각종 분과 위원회
 - ① 국문편집위원회
 - ② 국제편집위원회
 - ③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 사항은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한(限)한다. 대학에서 인본주의 진흥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공분야(예컨대 문·사·철 [文·史·哲], 정치·사회·경제, 보건·복지·의료 등)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학, 교육·연구·행정기관 등지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혹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인본주의적 가치를 목표로 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자.
2. 준회원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공분야(제6조 1항 참조)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4. 단체회원은 인간의 삶의 질 제고와 인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연구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또는 평생회비)와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제6조에 의거 각기 회원등급을 가지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학회 제반 업무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정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2인 내외
4. 감사 2인 내외
5. 이사 20인 내외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2.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다만, 회장을 역임하지 않은 인사라 할지라도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고문에 위촉할 수 있다.
3.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4. 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역할) 임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하며, 학회의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이사는 운영위원회
의 업무를 담당할 운영이사와, 소속기관이 속한 권역에서 학회의 저변 확대 사업을 담당할
지역이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직역에 따른 이사의 구분 및 임명은 총회의 결정에 따
른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다만,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다음과 같이 겸직을 금한다.

1. 회장은 다른 학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 (간사) 본회는 실무보조를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소집한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통지)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총회소
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이 총
회의 의장을 맡는다.

제19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및 임면에 대한 추인
4. 결산의 승인
5. 감사의 승인
6. 이사회가 발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
7. 학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회칙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결) 총회원(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정회원은 서면 위임장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위임

장은 총회의 출석인원과 의결에 포함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1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 과 '총회에서 선출한 정회원 3인 이상' 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 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1/3 이상의 이사들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 의 구성) 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된다.

제24조 (이사회 의 의장) 이사회 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이 이사회 의 의장을 맡는다.

제25조 (이사회 의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정 으로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서면 위임장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위임장은 이사회 의 출석원과 의결에 포함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6조 (이사회 의 역할) 이사회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 보고, 결산에 대한 심의
2. 회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
3.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심의
4. 총회 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5. 회칙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회원의 신상필벌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학회 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제27조 (운영위원회 의 목적) 본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 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된다.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연구이사, 국문편집이사, 국제편집이사, 교육이사, 대외협력이사.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고문이나 지역이사도 운영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위원회 의 역할) 운영위원회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에 규정된 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비, 가입비의 금액을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3. 학회지 및 간행물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4. 편집(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결정한다.

5. 그 밖에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제5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는 본회의 회계와 예산, 사무를 관장한다.
2. 기획이사는 본회의 연간 사업과 활동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학술연구이사는 본회의 학술연구사업 및 학술대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국문편집이사는 국문편집위원회분과 위원회의 장(長)을 겸하며 본회의 국문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국제편집이사는 국제편집위원회분과 위원회의 장(長)을 겸하며 본회의 영문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교육이사는 본회의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대외협력이사는 본회의 대외협력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1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의 1/3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된다.

제7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본회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바람직한 연구문화 창달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및 외부의 공식적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공식적 요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장(長)은 운영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자가 맡는다.
4. 연구윤리위원장은 본회 내부와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에 피소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위원회에 피소된 자의 연구물에 대하여 표절 여부 등을 심의한다.
2.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심의 결과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 및 보고되어야 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 본회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장(長)은 운영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자가 맡는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 또는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5. 임원 선거 출마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3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거 전반을 주관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제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임원 선거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입후보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임원 선거 실시 후 그 결과를 본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제9장 재 정

제38조 (재정) 본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평생회비, 이사의 연회비
2. 국가기관 및 관련단체의 지원금
3.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제3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 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장단 후보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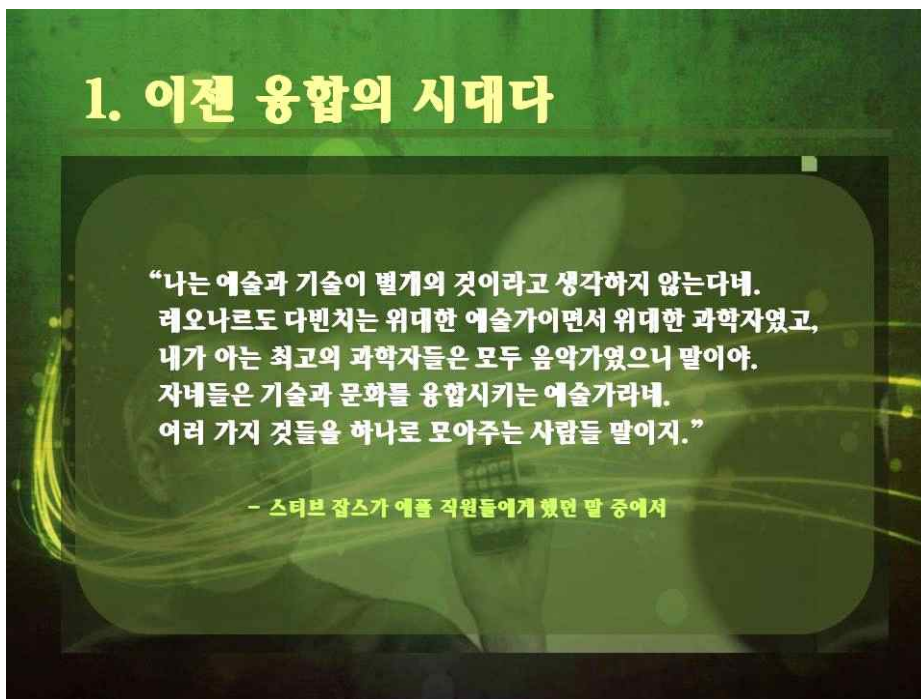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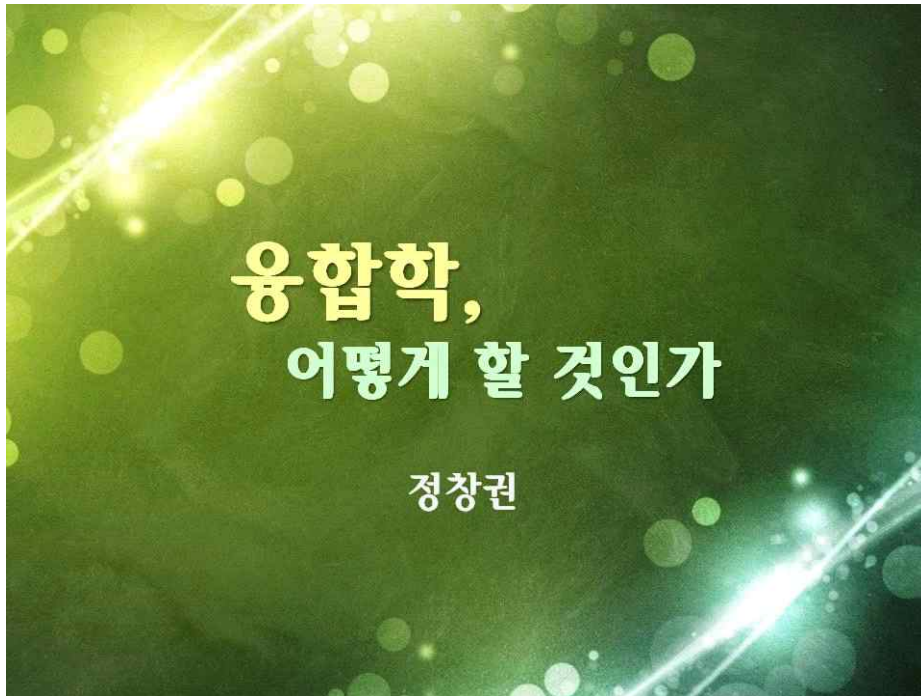
연번	직 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공
1	회장	소인호	청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문학
2	부회장	양윤모	극동대 교양학부 교수	국문학/한국어교육
3	고문	이소영	한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학
4	감사	정기봉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경영학/일문학

한국융합인문학회 이사진 후보자 소개

연번	직 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공
1	총무이사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방송연예예술학과 조교수	사회학/영상문화
2	기획이사	정재림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국문학
3	학술연구이사	김근면	서울여자간호대 조교수	간호학
4	대외협력이사	권진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정치학/행정학
5	교육이사	박승민	고려대 사회학과 외래교수	사회학/정책학
6	국문편집이사	박보영	극동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사회복지학
7	국제편집이사	조윤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	사회학

제2부 창립학술대회

근대 한국 사회구조에 대한 융합적 통찰



2. 융합이냐? 통섭이냐? 융복합이냐?

융합(融合, Fusion,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 새롭게 만드는 것)

: 물리적 형태의 결합+화학적 형태의 결합
즉,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통섭

: 에드워드 월슨, 「컨실리언스(consilience)」-지식의 대통합.
최재천, 「통섭(統攝)」-학문의 큰 줄기를 잡다

융복합(convergence: 여러 가지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일)

: 융합과 복합의 합성어

3. 왜 융합인가?

- 융합은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 대가(大家)들의 사통팔달(四通八達: 이리저리 사방으로 통함)
- 생활 속의 융합적 사고
- IT 발달과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 기술 혁신의 시대



4. 융합 기술이 국가경쟁력이다

- 해외 동향
- 정부 정책의 문제점
- 융합 대학 및 대학원
- 학회, 포럼, 컨퍼런스,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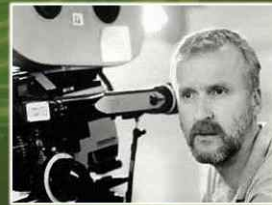
5. 각 분야별 융합 동향

- 신기술 분야의 융합
- 기존산업 분야의 융합
- 학문 및 기타 분야의 융합



6. 융합형 인재의 세계

- 이젠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지났다
- 융합형 인재란 누구인가?
- 이것이 융합형 인재다



7. 융합형 인재양성 방안

- 융합 교육 패러다임의 과거와 현재
- 통합교육을 하자
- 융합형 교육 방법들
: STEAM 교육, 프로젝트 수업, 학제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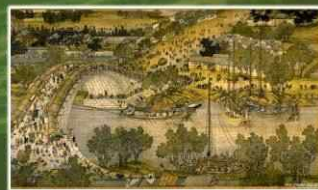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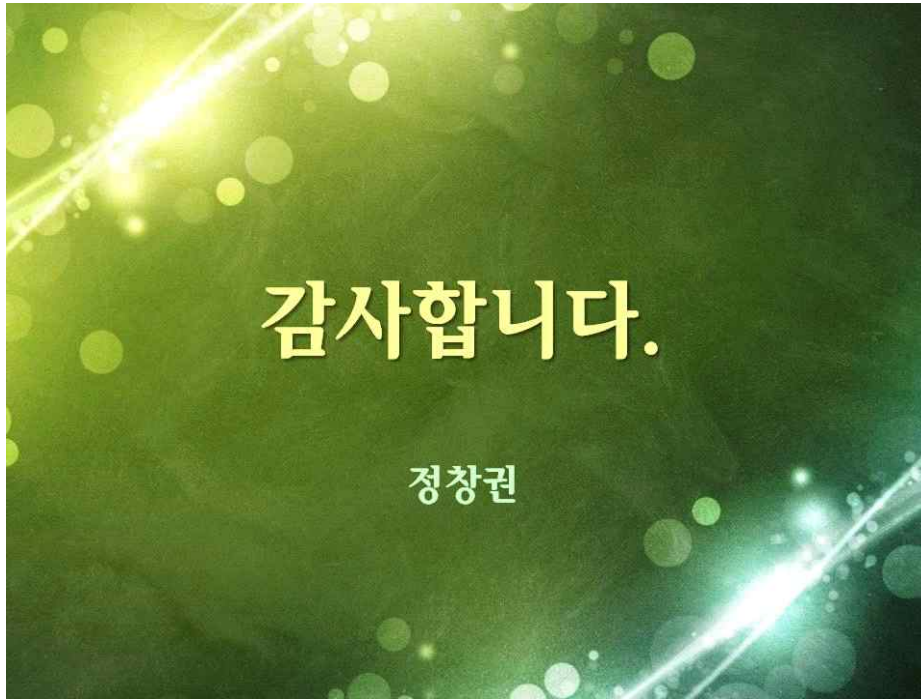
8. 융합 강국이 되기 위해선

- 미래에는 융합 기술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 융합 강국의 조건들
 - : 정부, 국민인식, 독서교육
- 한국은 원래 융합의 종주국이었다

9. 융합 시대의 인문학

- 융합은 인문학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다
- 인문학, 타 분야와 적극적으로 만나자
- 융합 시대의 리더, 인문학





산업화 시대 육체적 힘의 의미

양윤모*

I. 서론

농업중심 사회에서 육체적 힘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업의 경우 노동력은 절대적 요소로 농번기에는 다수의 인원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젊은 남성의 노동력이 선호되었다. 특히 노동력이 단기적이고 간헐적으로 필요한 생산구조였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인력을 유지할 수 없어서 두레, 품앗이 등 마을 단위의 협동 노동이 보편적 현상이었다. 노동력이 생산성을 좌우하였기에 다산을 장려하여 대가족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남아선호사상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산구조로 인해 농업사회에서는 육체적 힘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높았다.

그러나 기계 중심의 공장제 생산방식이 주류를 이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육체적 힘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다. 육체적 힘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공장제 산업은 기계의 작동을 바탕으로 육체적 힘을 요하는 작업은 많이 줄어들었고, 기계의 중심의 공정은 단순 노동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노동자를 배치하는 구조로 재편하게 되었다. 기계의 작동으로 인해 산업화시대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 및 아동도 공장에서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산업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는 농업중심의 생산체제를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로 이행시켰으며, 도시화를 촉진시켰다. 도시화로 인해 이농현상이 나타났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발생하였다. 농촌을 떠난 노동력은 도시에서 노동자가 되었으며, 육체적 힘이 우월하다고 해서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 글은 산업화 시대에 보통 사람보다 육체적 힘이 센 인물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힘

* 극동대 교양학부 부교수. yym02@kdu.ac.kr

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김승옥의 「力士(역사)」와 황석영의 「장사의 꿈」을 통해 고찰하고 육체적 힘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장사의 탄생과 힘의 내력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 사회에서 육체적 힘은 농업 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숭상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다.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경우 대부분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로 묘사되고 있으며, 실제 전쟁에서 이들은 힘을 바탕으로 혁혁한 전과를 세울 수 있었다.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히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찾을 수 있었다. (『역사』, 84쪽)¹⁾

「역사」의 서씨는 부계 혈통이 중국인으로 대대로 장수를 배출한 가문 출신이었다. 서씨의 조상들은 그들의 힘을 나라를 지키는데 사용하여 명예와 더불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서씨의 가문에게 육체적 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랑거리이자 자신들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것이었다. 중세시대 육체적 힘은 장수가 되는 조건의 하나였지만,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분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평민에게 남보다 탁월한 육체적 힘은 반역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하여 경계 및 제거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아기장수 설화’의 경우 혼란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탄생함으로써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된다.²⁾ 이처럼 중세에는 육체

1) 김승옥, 「역사」 (『문학춘추』, 1964). 이 글에서는 『김승옥전집2 - 생명연습 외』 (『문학동네』, 1995)을 텍스트로 삼는다. 이하 작품명과 면수만을 밝힌다.

2) 아기장수 설화의 개략적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4), pp. 35-36. 참고

1. 옛날 어느 곳에 한 평민이 살았는데, 산의 정기를 받아서 겨드랑이에 날개(비늘)가 있고 태어나자 이내 걸어 다니고 힘도 센 장수 아들을 낳았다.(출생)
2. 그런데 부모는 이 아기 장수가 크면 장차 역적이 되어 집안을 망칠 것이라고 해서 아기 장수를 돌로 눌러 죽였다. (1차 죽음)
3. 아기 장수가 죽을 때 유언으로 콩 닻섬과 팔 닻섬을 같이 묻어 달라고 하였다. (재기)
4. 얼마 후 관군이 와서 아기 장수를 내놓으라고 하여, 이미 부모가 죽었다고 하니 무덤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을 어머니가 실토하여 가 보았더니, 콩은 말이 되고 팔은 군사가 되어 아기 장수가 막 일어나려는 것이었는데, 그만 관군에게 들켜서 성공 직전에 다시 죽었다.(2차 죽음)

적 힘에 대해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한 힘이 아닐 경우 체제를 위협할 요소로 보았던 것이다. 서씨의 조상이 대대로 장수를 배출하였다면 서씨의 집안은 신분적으로도 평민층보다 높은 신분이었을 것이다.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아 서씨 또한 탁월한 힘을 소유하였다. 육체적 힘은 본인의 노력보다는 타고난다는 생각, 즉 유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서씨는 자신의 힘을 숨기고 공사장에서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간다.

아버지는 바다의 사나이였다 그 말씀야. 사형제의 셋째인데 위로 돌이 오징어잡이 배를 탔다가 먼바다에서 죽고, 끝엿삼촌은 대를 이어야 한다며 운전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선대의 가업을 물려받은 셈이었지. 그 양반은 나보다도 역세구 덩치가 커서 모두들 햇말장사라구 불렀지. 전설 같은 얘기지만 철도 레일을 한손으로 서너 번씩 꼬를 수가 있었다니까. 좌우간에 그분은 천성으로 타고난 뱃놈이었어. 배를 부린 지 십년 만에 세 척으로 가산을 늘려놓았던 말야. 지금도 그 양반을 생각하면 바닷바람에 생긴 마른버짐이 희끗거리는 거친 얼굴과, 팔뚝에 솟은 동앗줄 같은 핏줄, 그리고 킬킬하게 신 음성이 떠오르는 군. 우리 할아버지는 한 술 더 떴다는 거야. 역시 그분도 젊을 적에 바다에서 죽었지. 그 양반은 일찍이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지 아마. 햇말 너머에 묘심사라는 절이 있는데 말야, 칠성각의 네 기둥 중에서 하나가 새 것이지. 그 빠진 기둥자리가 우리 할아버지 기운 사랑의 흔적이라더군. 나는 참으로 힘에 있어서는 역사와 전통이 뚜렷한 가문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장사의 꿈』, 10쪽)³⁾

『장사의 꿈』의 일봉 또한 육체적 힘이 우수한 집안 내력이 있다. 조부, 부친 모두 햇말이라는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장사였다.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절의 기둥 하나를 빼버리고, 철도 레일을 한손으로 드는 등 조부와 부친의 힘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괴력을 보여준다. 일봉 또한 이처럼 힘이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을 가문에서 태어났다. 타고난 체력을 바탕으로 일봉은 동네 씨름 대회를 석권하고 군청 주최 대회에도 출전한다.

어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일봉은 어부가 될 체력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어부의 운명을 피하기 바라는 어머니의 당부에 따라 해산물 도매업을 하는 운전사의 조수로 취직한다.

서씨와 일봉 모두 조상 대대로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인 도시로 진입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장점인 육체적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5. 그런 후 아기 장수를 태울 용마(龍馬)가 근처의 용소(龍沼)에서 나와서 주인을 찾아 울며 헤매다가 용소에 빠져 죽었다.(용마(龍馬) 출현)

6. 지금도 그 흔적이 있다. (증거제시)

3) 황석영, 『장사의 꿈』 (『문학사상』, 1974. 2.). 이 글에서는 『황석영전집 1 - 물개월의 새』 (창작과 비평사, 2000)를 텍스트로 삼는다. 이하 작품명과 면수만을 밝힌다.

Ⅲ. 육체적 힘의 은폐와 자기만족

「역사」의 서씨는 장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남다른 힘의 소유자이다. 창신동 빈민가에서 하숙을 하는 서씨는 같은 하숙집 동료들 새벽에 동대문으로 데리고 가서 동대문 성벽의 돌을 가볍게 뽑아 들어올리는 괴력을 보여준다.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 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든 이름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力士),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없이 웃고 있었다. (「역사」, 83쪽)

서씨는 여러명이 지렛대나 도르래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큰 돌을 혼자서 맨손으로 들어 올리는 괴력을 소유한 사내였다. 나는 서씨의 행동을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놀라운 힘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감탄하며 그를 역사(力士)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서씨는 자신의 육체적 힘이 공사장에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하자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이를 포기한다. 이는 육체적 힘의 현실적 효용가치가 저하된 시대로 변모함을 의미하는 것이다.⁴⁾ 서씨의 힘은 지나간 시대의 산물로 신화나 전설의 세계에 속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합리성을 요체로 하는 현대 사회의 저편에 존재하는 주술적 세계의 잔여물이라 할 수 있다.⁵⁾ 하지만 서씨는 창신동의 빈민가에서 하숙을 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몇 푼

4) 이혜원, 「좌절된 힘의 의미」 (『어문논집』 32, 1993), p. 407.

5) 이승준, 「초기 산업사회의 명암과 그 지양」, 『한국 현대소설과 문학연구 방법』 (월인, 2008), p. 123.

의 웃돈과 바꾸지는 않는다. 결국 서씨는 자신의 힘이 자본주의체제에서 더 이상 명예롭게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힘을 세속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숨김으로써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역사』, 84쪽)

대대로 가보처럼 내려오던 힘이었지만 서씨는 남보다 탁월한 육체적 능력으로는 더이상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없었다. 누구든지 가보를 헐값에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지 않을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이 그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일 것이다. 서씨 또한 자신에게 상속된 무형의 가보를 돈 몇 푼에 파는 것을 포기하고 남들과 똑같이 노동함으로써 스스로 그 가치를 지켜나간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힘이 견재함을 확인하기 위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새벽에 동대문 성벽의 돌을 들어올린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역사』, 84쪽)

결국 서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적 힘을 자본주의 체제에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팔지 않고 숨김으로써 힘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으며,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서씨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주의 시대에 적합한 의미의 성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 일 뿐이었으며,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만의 성실일 뿐이며 비밀스러운 행위에 머물러야 한다는 데 현실의 강고함이 있는 것이다.⁶⁾ 힘을 쓰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서씨는 자존심을 지키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6) 양윤모, 「1960년대 근대화의 진행과 소외 양상」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 2012), p. 105.

IV. 육체적 힘의 성적 발산과 파탄

「장사의 꿈」의 일봉 또한 남다른 힘의 소유자였다. 「역사」의 서씨처럼 동대문 성벽의 금고만한 돌을 뽑아들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는 근동에서 알아주는 장사였다. 타고난 체력을 바탕으로 별다른 기술 없이도 동네 씨름대회는 물론 군 단위의 씨름대회에서도 우승하여 황소를 상으로 타기도 하였다.

농한기에도 그랬지만 특히 추석을 전후해서는 읍내에서 꼭 씨름판이 벌어지거든. 나는 출전 첫해에 나가서 이십명을 거꾸러뜨리고 단연 무적이 되었다 그말이야. 이듬해에는 근육도 늘고, 안다리 걸기, 발다리 후리기, 들어 메치기 하는 요령도 눈치로 배워서 군청 주최 대회에까지 진출했지. 시골 운동회란 어느 행사보다도 가장 살맛이 나는 잔치 중의 잔치라구 생각해. 줄다리기도 좋고, 투석도 좋지만 역시 나는 씨름판에 나서는 게 제일 신나더라. (…… 중략 : 필자) 그런 날에 나는 영광의 장사로 뽑히곤 했어. 장사의 곁에는 콧김 세고 뿔도 능름한 황소가 들러리를 서거든. 나를 사모하는 처자들의 눈길이며, 패배한 녀석들의 술취한 고함소리, 나를 에워싸고 들판에까지 쫓아오는 동네 꼬마들의 기나긴 행렬. 나는 실로 장가드는 기분이었다니까. 하지만 잔치는 매일있는 게 아닌지라 보통때 나는 식당에서 국밥을 나르거나 계란을 부치다가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곤 했었어. (「장사의 꿈」, 11-12쪽)

어부인 부친이 표류 후 후유증으로 돌아가시자 가족들은 바다가 보이지 않는 어느 읍내로 이사를 가고 차부 앞에 식당을 차린다. 일봉이 조상의 뒤를 이어 어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일봉의 어머니는 일봉이 운전수인 삼촌을 따라 운전을 배우기를 바란다.

“너는 아예 배를 탈 생각은 말아라. 죽더라도 물에서 죽어야 되느니라.”

“네, 저두 결심이 서 있습니다. 대처에 가서 성공하렵니다.”

“아니다. 네 따위가 대처엘 가면 불량배나 되기 꼭 알맞지. 삼촌을 따라서 운전이나 다녀라.” (「장사의 꿈」, 13-14쪽)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삼촌의 추천으로 해산물 도매운송업자의 조수로 취직한 그는 씨름보다 레슬링이 인기가 있다는 말에 레슬러가 되기로 결심한다. 운전사의 조수를 그만두고 도시에 온 일봉은 레슬러가 되기 위해 체육관을 찾지만 결국은 목욕탕의 때밀이가 되된다. 레슬러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일봉은 레슬링이 미리 짜고 하는 사기라는 말을 듣고 실망감과 혼란에 빠진다.

어느 날 일봉은 목욕탕에 때를 밀러 온 따루미감독을 만나 성인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된다. 영화배우라는 부푼 꿈을 안고 스튜디오를 찾아간 일봉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알고는 당황한다. 예전 어머니 생전에 식당에 온 손님으로부터 “일찍이 조실부모하여 타관 객지로 헤맬 몸인데, 워낙에 뼈가 귀한지라 비단옷을 입고 말을 타니 만인이 앙시하겠도다” 라는 예언대로 일봉은 “몸을 팔아 만인의 사랑을 받는 직업” 을 얻지만 이는 일봉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것이었다. 씨름선수, 레슬러, 때밀이, 포르노배우 모두 몸을 이용하지만 그 의미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씨름은 조작이 없었다는 점에서 순수한 운동이었지만 서로 짜고 한다는 의혹이 생기면서 프로레슬링은 거짓이 개입된 운동으로 변한다. 포르노영화는 순수해야 할 인간의 성애를 거짓된 연기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기계적이라 할 수 있다.

한때 레슬러를 꿈꾸었던 일봉은 목욕탕의 때밀이 기계에서 이제는 포르노배우기계로 변해야 함을 직시한다.

그때에 나는 낙원탕의 시다바리로 있었지. 누가 보더라도 누워 있는 살찐 녀석이랑 때를 밀고 있는 나는 묘하게 대조가 됐을 걸, 녀석은 살아서 눈도 껌벅이고 코도 찡그리고 하지만, 내 쪽은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로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테니깐 말야.(『장사의 꿈』, 9쪽)

어찌어찌 낙원탕으로 굴러들어와 이 추운 겨울을 다행히 벗구 살지. 그런데 때밀이짓도 아까 말했듯이 기계처럼 미칠 노릇이구만.(『장사의 꿈』, 15쪽)

동네 씨름관의 장사였다가 도시로 흘러들어와 자본주의적 질서 안에서 ‘씨름기계 → 목욕기계 → 포르노배우기계 → 매춘기계’ 로 변이되는 일봉은 근대적 체계가 만들어낸 성적 욕망에 종속된 ‘몸의 기계’ 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성적 욕망이 통제되는 가운데에도 일봉은 자본주의적 ‘성적 욕망’ 의 허구성을 직시하며 촬영장에서 탈출하고자 한다.⁷⁾ 한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이내 여주인공인 애자와 호흡도 잘 맞게 되었고 정이 들게 되었고 애자의 집에서 살림을 차린 일봉은 영화배우 일을 그만둔다.

우리는 우리의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배우 일을 버리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지.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서로의 살을 남의 눈초리로부터 빼앗아 올 수가 있다고 믿었거든. 깨물면 내 살이 아프고, 쓰다듬으면 네 살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진심은 또 어떠했는지. 그러나 우

7) 오태호,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성욕 주체’ 의 양상 연구」, (『국제어문』 36, 2006), p. 310.

리는 마음마저 빼앗아 올수는 없었지. 세상은 우리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주질 않았지. (『장사의 꿈』, 21-22쪽)

성인영화 배우 일을 그만두고 애자와 살림을 차리면서 일봉과 애지는 진실한 사랑을 희망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육체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육체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촬영장에서 행한 사랑의 행위는 거짓된 사랑이기에 해녀출신인 애자의 몸은 절대 뜨거워지지 않고 항상 차가웠을 뿐이었고 일봉의 연기 또한 차가운 기계적 육체 노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촬영장을 떠나 카메라가 없는 개인적 공간에서 진실한 사랑을 하며 빼앗긴 몸을 찾아왔지만 마음은 찾아올 수 없었다. 이는 자본에 예속된 정신, 기계처럼 자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은 장터에서 약장사 일행에 합류하지만 교통사고로 애자가 유산을 하고 둘은 1년 후 “돈 많이 벌어서 다시 만나” 지는 약속을 하고 헤어진다.

애자와의 이별로 인한 충격을 극복한 일봉은 버스에서 책장사를 하며 도시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일봉은 우연히 본 신문 광고를 통해 부유층 여성을 상대로 몸을 파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 일로 일봉은 애자를 다시 만날 정도의 돈을 모으지만 몸에 이상이 오고 만다. 현재 일봉의 생계 수단인 성기능에 장애가 온 것이다. 성행위가 노동이 되면서 기계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남녀간의 사랑의 도구인 성마저도 노동과 같이 사고파는 물건으로 전락하고만 현실에 대한 윤리적 응징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본으로부터 마음은 몰라도 몸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시 찾은 몸마저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혀 맥이 없고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내 그것이 말을 듣지 않게 되었어. (…… 중략 : 필자) 나는 너무 피로했던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내 몸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었던 모양이야.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가까이 가기가 싫었지. 왜냐하면 그들은 내 일의 대상이었고, 책무였기 때문이었어. (…… 중략 : 필자) 나는 치욕감 때문에 상실한 기능을 되돌이켜보고 싶은 원망도 일어나지 않았지. 오히려 그런 증세를 반가이 맞이해서 안주하고 있었다고나 할 수 있을 거야. 마음도, 이제는 몸마저 잃어버린 것이지. (『장사의 꿈』, 28쪽)

‘힘에 있어 서는 역사와 전통이 뚜렷한 가문’에서 태어난 장사이지만 그의 힘은 도시적 삶에서는 건강성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성의 도구로서 기능했을 뿐이다. 일봉의 도덕적 육체적 타락은 도시적 삶의 불건강성을 반증하는 것이다.⁸⁾

8) 이혜원, 앞의 논문, p. 409.

일봉은 1년 후 애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로 나가지만 애자를 만나지 못한다. 일봉은 ‘애자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음을 느끼자, 나는 거세되어버렸다는 걸 알았고, 내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몇근의 살덩이에 지나지 않았’ 다며 눈물을 흘리며 도시를 떠나간다.

일봉은 자신의 힘을 현실적 욕망에 복종시킴으로써 힘의 원초적 건강성을 굴절, 타락시킨다.⁹⁾ 결국 일봉은 육체적 힘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성의 상품화를 경험하면서 육체적 힘을 성적인 면으로 발산하다 파탄을 맞고 만다. 꿈 많던 시골의 장사가 목욕탕 때밀이, 포르노배우를 거쳐 남창으로 전락해가는 일봉의 행적은 육체적 힘의 현실적 효용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힘이 윤리적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경우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V. 결 론

1960-1970년대 한국 경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에서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었다. 기계의 도입으로 공장에서는 육체적 힘보다는 기계의 관리 및 기계가 하지 못하는 단순 노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괴력의 소유자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의 노동력은 다른 노동자의 노동력과 마찬가지로 사고파는 상품에 불과하였다.

김승옥의 「역사」와 황석영의 「장사의 꿈」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탁월한 육체적 힘을 소유한 인물들이 산업화 시대의 도시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역사」의 서씨는 자신의 가치를 숨김으로써 자신을 지키지만 「장사의 꿈」의 일봉은 자신의 가치를 노동이 아닌 성적인 면에서 발산하다 좌절과 파탄을 맞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두 작품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육체적 힘은 노동력이라는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승옥, 「역사」, 『김승옥 소설전집 1 - 생명연습 외』, 문학동네, 1995.

황석영, 「장사의 꿈」, 『황석영 중단편전집3 - 물개월의 새』, 창작과비평사, 2000.

9) 이해원, 앞의 논문, p. 410.

2) 논문 및 단행본

-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 김지혜,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병리적 몸 인식과 근대적 주체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김진균, 「육체노동, 그 자본주의적 의미」, 『문화과학』 4, 문화과학사, 1993.가을.
- 김태빈, 「김승옥 소설의 소외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2002.
- 민족문화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 안남연, 「황석영 소설의 역사인식과 민중성」,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2004.
- 양윤모, 「1960년대 근대화의 진행과 소외의 양상」,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 극동대 사회복지연구소, 2012.
- 오양진, 「소외, 혹은 환상문학의 가능성」,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2012.
- 오윤호, 「가족 관계와 가난과 이주에 대한 윤리적 대응 연구」, 『국제어문』 35, 국제어문학회, 2005.
- 오창은, 「1960년대 ‘방’ 을 통해 재현된 도시적 불안」, 『우리문학연구』 20, 우리문학회, 2006.
- 오태호,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성욕 주체’ 의 양상 연구」,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
- 이승준, 『한국 현대소설과 문학연구 방법』, 월인, 2008.
- 이혜원, 「좌절된 힘의 의미」, 『어문논집』 32, 고려대 국어국문학회, 1993.
- 조명기, 「중심/주변 공간 위계의 내면화 기제」, 『로컬리티인문학』 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09.

“산업화 시대 육체적 힘의 의미”에 대한 토론문

고지혜 / 인하공업전문대학 외래교수

양윤모 선생님의 「산업화 시대 육체적 힘의 의미」는 ‘육체적 의미’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계 중심의 공장제 생산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육체적 힘을 지닌 이들은 가장 먼저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는 더 이상 이러한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이들은 자신만의 존재 증명 방식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상실해 왔는지, 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술중속적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이 김승옥의 「역사」와 황석영의 「장사의 꿈」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김승옥과 황석영은 1960-7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인 동시에 한국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두 작가 개개인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역사」와 「장사의 꿈」 각각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승옥과 황석영의 문제의식을 연결하여 생각해 보거나 이 두 작품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 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와 「장사의 꿈」은 1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발표되기는 했지만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의 공통점에 주목한 점은 김승옥과 황석영의 작품세계를 좀 더 다층적으로 살펴볼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들에 동의하며 「역사」와 「장사의 꿈」에 대한 보다 섬세한 이해를 돕고자 두 작품의 결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결론에 강조하신 것처럼, 이 작품들은 산업화 시대에 있어 육체적인 힘이란 상품화된 노동력에 불과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력은 기계의 생산성에 견주었을 때 보잘 것 없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 산업화 시대의 인간소외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결론 부분에서 「역사」의 서씨가 자신의 가치를 숨김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자신을 지키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서씨의 이야기를 전하는 젊은이, 즉 이 소설에서 액자 속 서술적 화자인 '나'의 태도나 액자 밖의 '나'의 마지막 말을 고려할 때 서씨의 행동은 양가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장사의 꿈」의 경우, 선생님께서는 일봉이 자신의 가치를 노동이 아닌 성적인 면에서 발산하다가 파탄을 맞게 된다고 보셨습니다. 도시에서 일봉이 제대로 돈을 벌 때란 성인영화에 출연하거나 부유층 여성을 상대로 몸을 팔 때뿐이었다는 점과 소설의 말미에서 일봉이 성기능 장애를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의 말미에 제시된, 일봉이 성기능을 되찾는 장면은 상징적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일봉의 삶에 있어 과연 출구라는 것이 있을지, 일봉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특히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일봉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기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도시를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힘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은 실현되는 듯합니다. 특히 이 소설의 마지막 두 단락에서 성기능을 되찾는 일봉을 묘사하는 부분은 주목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며, 도시에 머무는 서씨와 도시를 떠나가는 일봉을 대조해 볼 때 이 둘의 삶이 어떻게 같거나 다르다고 느끼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는 1960-70년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든 현재의 시점에서 산업화 시대를 논의의 대상으로 주목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폐쇄적 사회체제에 대한 우화적 형상화

: 영화 <설국열차>에 대한 정치사회적 분석

송시형*

I. 머리말

일반 대중들이 정지돼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인 스펙타클로 확인하게 된 계기는 근대사회 들어서 와서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부터의 일이다. 기차는 시각적 스펙타클의 경험을 차창 밖 너머로 보이는 풍경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해 주면서 일종의 시각적 파노라마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이런 시각적 체험은 영화의 탄생에 많은 영감을 준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가 1895년 첫 유료 상영회를 열었을 때 <기차의 도착>이라는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하였던 것은 우연으로 여길 수 없는 이벤트였던 것이다.

이런 근대의 상징이자 영화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연결하게 되어 있는 기차라는 공간이 <설국열차>의 원작 만화에서는 기차라는 공간 자체의 폐쇄성에 좀 더 주목하고 있다. '기차'라는 공간이 의미하는 견고하게 짜여진 사회체제의 상징성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채로운 인간들의 모습과 투쟁과정의 담겨 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차'라는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인류의 멸망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기차 칸칸마다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계급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 방법에 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존 체제의 불만과 극복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입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작품이다.

본 글에서는 이런 '기차'로 상징되는 폐쇄적 사회체제가 <설국열차>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고 진행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국제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예술학과 조교수. aniculture@naver.com

II. <설국열차>에서 '기차' 공간의 상징적 의미

'기차'가 주요 공간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흔히 속도감을 강조하거나 기차 밖의 전경이나 혹은 기차 칸과 칸 사이를 이용한 액션 장면들이 영화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설국열차>는 이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기차라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¹⁾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기차 공간은 분석해 본다면 루이스 맴퍼드가 제시한 기계체제에 대한 분석이 있다. 루이스 맴퍼드에 의하면 '거대 기계란 인간과 사회조차 그 부속품이 되어버린 기계 체계다. 일단 거대 기계가 등장하고 나면, 이제 인간이 기계를 부리는 게 아니라 기계 체계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인간이 지배와 동원의 대상이 된다. 문명 전체가 하나의 기계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Lewis Mumford, 2012). 이러한 '거대 기계' 개념으로 대입하면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멈추지 않고 고속으로 질주하며 인간의 수용 시설이자 또한 그 숭배 대상이 되기도 하는 <설국열차>의 기차공간은 '거대기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작품에서의 기차공간은 월러스틴의 '세계체제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월러스틴은 사회현상을 각각 분리된 박스로 보고 그 박스에 정치, 경제, 사회구조, 문화라는 이름을 부여한다면 이 분리된 박스들 안에서 다뤄지는 현상들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한 현상의 존재는 다른 현상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였다(Immanuel Wallerstein, 2005). 한마디로 현대세계체제는 단일한 체제로 이뤄져 있다는 것인데 <설국열차>에서도 이 이론으로 본다면 기차의 각각의 칸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현상이자, 현대세계체제의 축소판을 이룬다. 각 칸은 다른 칸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차라는 공간이 운영되는 과정은 가장 합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짜여진 일종의 관료 체계로 운영되는데 이는 막스 베버의 '쇠우리(iron cage)'를 떠올리게 한다(Max Weber, 2011). 개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 시스템에 개인이 간혀버릴 것이라는 비극을 언급한 베버의 생각처럼 설국열차 속 인간들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고철로 만들어진 진짜 '쇠우리'에 갇히고 말았다.

1) <설국열차>는 '기차'라는 긴 물체가 끊임없이 운행되면서 벌어지는 액션영화임에도 영화의 화면비는 넓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2.35:1 비율의 가로가 긴 화면크기가 아니라 한 장면 한 장면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1.85:1 비율의 일반적인 와이드 크기의 꼭찬 화면비로 전개된다.

Ⅲ. 폐쇄적 사회체제로서의 기차 공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생존 가능한 열차라는 공간은 그 제한성으로 인해 균형의 유지가 상당히 강조된다. 공간과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열차의 시스템은 유지되어야 하고, 탑승객이 지불한 티켓에 맞는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차별과 희생이 필요하게 된다. 이 차별과 희생은 이 열차에 무임승차한 꼬리 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강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합리화된다. 이는 이 열차를 만들었고 관리하는 열차의 설계자이자 최고권력자인 월포드의 논리로, 가장 성공적인 반란을 일으킨 커티스나 꼬리 칸의 성자라 불리는 길리엄도 반박하지 못한 것이다. 혁명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반박하지 못한 것은 이들 모두가 열차 안에서의 생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열차를 타기 위해 치렀던 희생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조지 C. 호만스에 따르면 사회는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equilibrium)을 맞추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 이 항상성은 체계로 유입되는 요소들의 상태나 그들 상호관계가 상태가 그 요소들 가운데의 하나에 어떤 조그만 변동이 일어날 경우 여타 요소 가운데에서 변동이 뒤따라 일어나 원래의 변동의 정도를 감소시키게 되는 그러한 체계의 조건이다(George C. Homans, 1950: 303-304 , Richard P. Appelbaum, 1983:65 재인용).

열차를 타기 전 인류는 어떠했나 생각해보면 월 포드의 논리는 더욱 공고해진다. 오래 전부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는 있어왔지만 온난화는 갈수록 심해졌고 그에 따른 기상이변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 끝에 개발한 cw-7이라는 냉각제를 지구 상공에서 터트리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실패하게 됨으로써 인류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온난화라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시도가 빙하기라는 불균형을 일으킨 것이다. 이는 균형을 유지하며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인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영화에서 기차의 탑승 인원의 구성을 보면, 꼬리 칸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앞 쪽으로 전진하면 할수록 백인 이외의 인종은 찾을 수가 없다. 이는 빙하기 직전의 세계가 백인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탑승권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또한 이른 바 선진국의 부유한 백인들이었기에 그것이 열차 내에서의 계급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설국열차가 생존을 위해서 시스템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점에서 과거의 인류보다 조금 진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과거 체계의 연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폐쇄된 기차 공간에서의 사회체제

1. 교육을 통한 사회통제

기차공간 안에서의 사회체제는 교육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교실 칸에 도착한 커티스 일행들은 월포드의 일대기를 배우며 월포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월포드에 대한 찬양과 숭배이고, 다른 하나는 기차 안에서 사회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세뇌교육이다. 커티스가 교실 칸에 도착한 때에 마침 시험에도 항상 나오고 가장 중요한 학습 포인트인 '얼어 죽은 7인'이 있는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차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되고, 월포드의 기차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아이들이 기차 안의 사회체제를 맹신하게 만든다.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체제를 부정하고 벗어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교육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1] 설국열차 안의 '교실칸'의 수업장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통한 지배가 아닌 교육을 통해서 피지배 계층이 스스로 지배 계층의 논리를 받아들여 함으로써 더욱 단단하게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 장면을 통해 지배 계층의 논리가 교육을 통해 어떻게 재생산되고 유지되는지, 교육이 폭력보다 더욱 강한 지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 칸에서 벌어진 무차별적인 학살은 이념을 뒤엎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 것인가 하는 생

각을 하게 했다.

2. 인구의 적극적 억제를 통한 균형과 유지

교실칸을 지나 급수칸 쟁탈을 앞두고 커티스 일행과 도끼를 든 진압요원이 대치하는 긴박한 장면에서 열차는 예카테리나 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이 때 엉뚱하게도 열차에 탄 이들은 “Happy New year” 를 외친다. 열차에서 생존하는 이들에게 시간은 곧 각 궤도의 장소로 대치되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직진하는 열차는 실상 지구상의 궤도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진보보다는 체제와 균형의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월포드에 호응하여 기차 또한 그렇게 정해진 궤도 위를 돌기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유한한 상황 하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남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 체제의 유지와 보수는 어김없이 꼬리 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기차 안에서의 체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영화에서는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나오는 적극적 억제를 선택하고 있다. 맬서스에 의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식욕과 성욕으로 미래를 예측했다. 인간의 성욕은 강하고 이를 제약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반면 인간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은 자연적 환경에 의해 제한된다(Thomas Robert Malthus, 2011).



[그림 2] 열차의 급수칸에서의 폭동 진압장면

영화 속에서 정기적인 학살의 가장 큰 이유는 적정인구 유지로 목적으로 댈서스의 적극적 억제로 볼 수 있다. 설국열차는 극도로 제한된 공간으로 사람들은 101칸에 불과한 기차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공간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 면적이 제한된 탓에 생산되는 자원도 많지 않다. 기차 안의 인구수가 일정 선을 넘어서는 순간 물자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월포드는 꼬리칸의 지도자인 길리엄과 공모하여 정기적으로 꼬리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해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한한 기차라는 기계의 특성상 이제는 수리할 수 없는 부품 대신에 그 공간에 맞는 아이의 노동력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유지하게 되는데 이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런 희생은 계속 될 것이고 균형의 유지와 위해 희생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IV. 폐쇄적 사회체제에서의 혁명

이 작품은 꼬리칸에서 엔진과 월포드가 있는 맨 앞 칸까지 투쟁하며 전진하는 주인공 커티스의 행동과 미친 듯이 크로놀을 모으면서 기차 밖 너머의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남궁민수의 행동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설국열차〉에서 커티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혁명은 불완전한 혁명이다. 열차 내 최고 권력자 월포드를 제거하는 계획이 성공한다고 해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또한 공포와 불안 심리를 조장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열차 밖에 나가면 죽는다.” 고 끊임없이 선전하는 모습을 폭로한다 한들 여전히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제하는 주체만 바뀔 뿐이다.

하지만 기차라는 폐쇄적 사회체제에서 이런 월포드의 방식이 아니었다면 그나마 남은 인류가 17년간 살아남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한의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혁명엔 기존 체제의 당위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틀 안에서 차별에 불만을 가지고 일으킨 반란은 그 틀의 당위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 또 다른 희생을 만들어 내야 했기에 커티스의 반란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알아차린 커티스가 좌절할 때 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람은 남궁민수이다. 그가 열고 싶은 문은 미래로 나가는 문이다. 육중한 몸을 움직이는 열차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앞 칸 즉 엔진이 있는 칸으로 상징되는 권력이 아니라 열차 밖에 있는 바깥세상으로 새로운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은 미래로 나가는 통로로 열차를 바꾸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아예 탈출해야만 주어지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남궁민수의 반란은 커티스의 반란과 방향을 달리한다. 엔진룸을 향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문을 열어 전진해온 커티스와 달리 남궁민수의 시각은 창 밖 세상을 향해있다. 그의 딸 '요나'에게도 될 수 있는 한 창 밖을 보여주려고 하고, 농사 칸을 지날 때는 흙에 대해 설명해준다. 남궁민수는 틀 안에서의 반란보다는 틀 자체로부터의 탈출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커티스 일행의 문을 열어주는 대가로 착실히 크로놀을 모으고 환간에 찌든 사람들을 지나면서 모피 옷도 챙기며 자신의 계획을 준비한다. 엔진룸 앞에서 커티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만 이들의 의사소통은 통역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불완전한 것이었고, 결국 남궁민수는 커티스를 설득하는 일이 실패하게 된다. 영화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지는 않았지만, 남궁민수는 앞서 7인의 반란에 함께 가담했으나 보안 담당이라는 그의 역할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간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남궁민수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궁민수로 대변되는 1세대들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2세대라 할 수 있는 요나에게로 이어져 마침내 기존의 틀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가 환경재앙 이후 17년이 지난 지구는 여전히 춥지만 더 이상 얼어 죽을 만큼은 아니었다. 눈은 녹고 있었고, 생명체도 존재했다. 폭발한 열차에서 살아 나와 눈밭에 발자국을 남긴 이들이 동양인 소녀 '요나'와 엔진룸에서 부품대신 일하던 흑인 꼬마 '티미'라는 것은 유독 감독의 의도가 진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생존을 위해 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하겠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당한 점이 있다면 설사 그것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감독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와 티미는 희망의 상징이자 폐쇄적 사회체제를 극복하는 선택으로 보인다. 요나와 티미는 그런 부당함을 보고 겪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폐쇄적 사회체제를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설국열차〉의 꼬리칸에서 엔진이 있는 맨 앞 칸까지 전진을 하면서 벌어지는 인간의 행위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기차 칸칸 마다의 인간들의 모습은 생존본능만 작동하던 원시사회에서 점차 질서가 잡힌 문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고 이런 문명이 향락과 기득권 수호라는 뒷에 빠지면서 쇠퇴해 가는 흡사 인류의 문명의 흥망성쇠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렇듯 인류는 지금까지 하나의 문명이 탄생하고 그 구성원들은 계급별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상호작용과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균형을 맞추며 사회를 유지시켜 나간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은 서서히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균열이 커지면서 중국엔

하나의 문명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봉준호 감독은 <설국열차>에서 이런 인류의 모습을 ‘기차’ 라는 좁고 닫힌 공간을 이용해 관찰하는 듯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이런 감독의 의도가 작품에서 커티스가 엔진을 향해 한칸 한칸 전진하면서 반복적으로 ‘닫힌 생태계’ 의 언급과 ‘균형’ 을 강조하는 이미지와 구성원들의 행위들을 보여주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단순히 관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갇힌 프레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그 프레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중들을 향해 작품을 통해 말한다. 그것은 기존 프레임을 깨고 밖으로 나가면 불안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자유와 희망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사회체제라면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해 보면서 칼 포퍼(Karl R. Popper, 2006)가 말한 열린사회²⁾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폐쇄적 사회체제인 기차 공간 안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기차 안 닫힌 생태계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선택해야 하는데 봉준호 감독은 영화 속 이미지와 이야기 전개로 체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찌 보면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중들의 각성과 선동을 자극하는 계몽영화이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직접적인 설명과 대사처리가 유독 두드러지는 이유일 것이다.

영화라는 매체는 당대 현실사회를 반영하는 하는데 이런 점에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관객들이 공감하던 혹은 불만을 갖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국열차>는 결국 인간사회에서 개인의 행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모여 집합행동으로 이어질 때 어떤 결과와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작품이다. 이것이 이 작품의 큰 힘이자 논쟁을 일으키는 지점이고 그런 점에서 봉준호 감독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 참고문헌

Appelbaum, Richard P. (1983). 『사회변동의 이론』, 김지화 옮김, 한울아카데미.

2) 칼 포퍼의 열린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된 사회이며 개인이 그의 이성애 입각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사회이다. 이때 자유란 다수와 의견을 달리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인간 진보의 원천으로서의 자유이며, 권리란 자신의 지배자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된다.

Homans, George C. (1950). *The Human Group*. New York: Harcourt, Brace&World.

Leibenstein Harvey.

Karl R. Popper (2006). 『열린사회와 그 적들 I』, 이한구 옮김, 민음사.

Mumford, Lewis (2012). 『기계의 신화 2: 권력의 펜타곤』, 김종달 옮김, 경북대학교 출판부.

Malthus, Thomas Robert (2011). 『인구론』, 이서행 옮김, 동서출판사.

Wallerstein, Immanuel (2005).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 이광근 옮김, 당대.

Weber, Max (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옮김, 길.

“폐쇄적 사회체제에 대한 우화적 형상화 : 영화 <설국열차>에 대한 정치사회적 분석”에 대한 토론문

[영화 <설국열차>의 세계관에 대하여]

권진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작가(봉준호)가 의도한 <설국열차>의 ‘기차’ 라는 시공간, 즉 ‘체계’ 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비유는 균형과 진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설국열차라는 사회는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견고한 계급 질서와 계급 갈등으로 직조된 생태학적인 균형의 상태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착취와 희생을 강요받는 계급인 커티스와 남궁민수 일행은 자신들의 자유와 생의 의미를 쟁취하기 위해 계급투쟁을 통해 창조적인 파괴를 해나가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계급간 갈등과 생태학적 균형에 대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차’ 라는 체계(system)는 계급에 따라서 서로 판이한 장소로 해석된다. 기차는 필요한 식량과 재화를 자급자족하도록 설계된 생태학적인 균형의 세계이므로 외부세계와의 영향을 주고받을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머리칸 쪽에서 향락을 즐기는 착취 계급은 이 폐쇄된 체계가 만족스럽다. 그러나 꼬리칸에 탑승한 피착취계급은 더럽고 불안한 환경에서 모든 일상을 감시당하고 강요받는다.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예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얼어 죽은 7인’ 처럼 되기 때문에 근근이 생존을 이어가는 고난의 공간일 뿐이며, 당연히 머리칸의 특권을 공유하며 왜 월포드가 이렇게 기차를 설계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만일 커티스가 월포드의 자리를 물려받고 머리칸과 꼬리칸의 계급이 서로 위치를 바꿨다면 이 영화의 진정성은 크게 훼손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체계 내에서의 단순한 자리바꿈일 뿐이며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을 댓가로 삼는, 생태학적인 균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서 그 이상의 것, 바깥 세상에 대한 탐구와 적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점을 필자는 잘 포착하여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

“... 열차는 예카테리나 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이 때 엉뚱하게도 열차에 탄 이들은 ‘Happy New Year’를 외친다. (중략) 앞으로 직진하는 열차는 실상 지구상의 궤도를 끝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진보보다는 체제와 균형의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윌포드에 호응하여 기차 또한 그렇게 정해진 궤도 위를 돌기만 하는 것이다.” (p.4)

“〈설국열차〉에서 커티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혁명은 불완전한 혁명이다. 열차 내 최고 권력자 윌포드를 제거하는 계획이 성공한다고 해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pp.5~6)

필자는 〈설국열차〉를 분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문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개념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제목에서 밝힌 것과 같이 ‘폐쇄성’ 과 ‘체계(이)론’ 인 것으로 보인다.

작가(영화감독)이 ‘기차’ 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인간군상과 사회에 대한 유비(alalogy)를 펼쳤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필자의 주된 논의인 ‘폐쇄적 사회체제’ 에 관한 논의는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그러나 필자는 작품분석을 위해 너무 많은 이론적 자원들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연쇄적으로 남발함으로써 스스로의 논지를 해치고 있다. 필자가 동원한 이론적 자원들을 열거해 보면, 루이스 멩퍼드의 ‘거대 기계’ , 임마누엘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론’ ,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 , 토마스 맬더스의 ‘인구론(에 나오는 정치경제학의 개념)’ , 칼 포퍼의 ‘열린 사회(의 소통이론)’ 등이 있다. 그런 어떤 이론, 특히 사회과학적 개념을 제시할 때는 ‘어떤 이론을 연상하게 한다’ 는 식의 비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견고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 이론이 풍기는 인상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

이론적 개념의 남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론(world system)’ 에 관한 언급을 들 수 있다.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론은 페르낭 브로델 등의 아날학파의 (자본주의 문명, 장기 지속, 국면 등과 같은) 시간 개념과 남미 사회과학의 종속이론이 갖는 중심(core)과 주변(periphery)이라는 공간 개념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축을 기반으로 직조된 세계사를 보는 거시이론이다. 윌러스틴도 세계체제가 전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미시이론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차원에서 봐야하는 하나의 시각(perspectives)으로 자신의 이론적 위상을 설명

하며 지문화(geo-culture)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개의 분리된 박스들이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오히려 윌러스틴 이전부터의, ‘체계이론’ 에 대한 설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주된 이론적 자원을 사촌격인 세계체계론이나 막스베버의 관료제론보다는, 본연의 의도에 맞는 체계이론이나 생태학적 균형과 관련된 이론에 찾기를 권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아쉬운 점은 너무 정석 그대로 독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의도했던 아니든, 작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공감이가는 반면 다소 평면적으로 설명한 것 같다. 아무리 해석이 감상하는 자의 몫이라고는 하나, 일반 관객이 보지 못한, 달의 어두운 편을 입체적으로 조명해주는 것도 연구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복지 클라이언트(client)의 주체화와 영화 <완득이>*

-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을 중심으로 -

권미영** · 박보영***

I. 머리말

영화, 특히 상업영화는 그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대중과 동떨어질 수 없다. 즉 동시대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적절하게 녹여냄으로써 흥행이라는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이다.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사회가 사회복지 대상자(이하 클라이언트 client)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인 것이다.

이렇듯 주류 대중매체의 대표적인 상업영화를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작업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 <완득이>는 사회복지학적으로 매우 유용한 영화라 보여진다. 영화 <완득이>가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결혼 가정, 학교 폭력, 차별 등 일련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한 데 녹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 <완득이>는 기존의 여느 영상매체들이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클라이언트를 묘사하고 응시하고 있다.

영화 <완득이>는 클라이언트를 동정하지도, 미화하지도, 그렇다고 냉소하지도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히 우리 네 옆에 이런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어떤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야한다든가 하는 계도적인 접근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다. 이는 그간 (텍스트로서의)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클라이언트를 그려왔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를 복지철학적인 시각에서

* 이 글은 아직 완성 단계의 글이 아닙니다. 가급적 인용을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 중앙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고려대 사회학 석사. miyoung0408@naver.com

*** 극동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bypark@kdu.ac.kr

보자면, 영화 <완득이>는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주체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나아가 그들을 계도의 대상 또는 개선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이론, 특히 푸코의 권력이론에 대입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권력에 의해 타자화되고 소외된 현대사회의 시민을 어떻게 하면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상가였다.

푸코에 따르면, 일상생활 속 우리는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누가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더라도 일정한 규칙이나 절차를 지키면서 생활한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푸코는 이런 상황에 큰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근대적 주체는 역사의 특정 시기에 특정 권력장치를 통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근대적 주체는 규율에 따라 구성된 '순종적' 생체(body)다. 푸코는 근대적 주체가 어떤 권력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에 의해 순종적 생체로 기능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즉 근대적 주체가 어떤 지식, 과정, 절차, 기술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양운덕, 2003: 4-11).

이 글은 푸코의 이론—미시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현대사회의 인간소의 현상을 파헤치—을 통해 영화 <완득이>를 복지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대중문화 텍스트에 나타난 새로운 인식을 사회복지학적으로 조명하여 그 의의를 찾아내고자 하며, 나아가 사회복지실천현장은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가치체계, 즉 '클라이언트'는 시혜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II. 영화 <완득이>를 사회복지학적으로 다시보기 위한 이론적 논의 :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푸코의 권력이론을 통해 영화 <완득이>를 다시보기에 앞서 여기서는 먼저 개괄적이거나 푸코의 권력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푸코는 '푸코 효과' (Foucault Effect)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20세기 사상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거인이다. 특히 그는 병원이나 감옥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을 통해 그간 간과되었던 미시권력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Burchell et al., 1991; 조원광, 2012: 242에서 재인용).

푸코가 권력을 설명하고 서술한 방식은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권력을 다루는 통상적 방식과 획기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조원광, 2012: 243-244).

첫째, 푸코는 권력을 네트워크(network)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권력이론과 차별성을 보인다. 그는 권력을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체를 넘어서

네트워크의 효과로 여긴다. 예컨대 감옥에서 일어나는 죄수의 복종은 간수의 힘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죄수는 간수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간수는 죄수를 쉽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독특한 건축학적 배치’ (이른바 팬옵티콘), 죄수들에게서 행위 이면의 범죄성을 읽어내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인간학적 담론’, 그리고 죄수의 일상을 통제하는 일과표 같은 ‘구체적인 기술’ 이 연계된 결과 발생하는 효과다.

둘째, 푸코는 억압적 권력이 아닌 적극적 권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권력이론과 차별성을 보인다. 그가 말하는 적극적 권력이란 근대 권력의 전형적인 속성으로, 권력이 피지배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를 생산하고 키워내는 데 사용됨을 뜻한다. 즉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목숨을 앗아가는 처벌 위주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동시에 유용하면서도 순종적인 주체를 양성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근대사회에서는 사형과 같이 권력에 의한 극단적 처벌 또는 위협이 매우 예외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권력이 비가시적인 형태로 일상 속에서 행사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요컨대 적극적 권력이 작동하는 근대사회에는 억압이나 위협 없이도 알아서 생산활동에 매진하는 이들과, 자발적으로 체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는 게 푸코의 핵심 주장이다.

따라서 푸코는 자신의 권력이론에서 권력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Foucault, 1976: 4장 2절; 양운덕, 2003: 22-24에서 재인용). ① 권력관계는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틀과 함께 작용한다; ② 권력관계는 다른 관계들, 예를 들면 경제·정치·성관계·대인관계 안 에 들어있다; ③ 권력은 어떤 개인, 집단, 기구가 소유하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망이다; ④ 권력은 하나의 중심을 갖지 않는다; ⑤ 권력은 권력자(주체)의 의도나 결정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권력관계는 주체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주체는 그 원천이 아니다; ⑥ 권력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는 관점을 버릴 것을 권한다; ⑦ 권력을 금지, 불허의 형태가 아니라 생산적 유효성, 풍부함, 긍정성에 주목한다. 여기서 긍정성은 권력이 작용할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이 스스로 권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점에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⑧ 권력을 세력 간의 갈등관계로 보고 권력이 저항을 수반한다고 본다. 그러나 권력의 핵심이 없듯이 저항에도 핵심이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푸코의 권력이론에서 권력이란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미처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푸코는 “우리를 규율해 온 그 무엇” 을 권력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그는 이를 ‘생명(관리)권력’ 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바로 이 생명(관리)권력이야말로 근대 권력의 요체라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권력은 생체를 체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길러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근대의 위생권력은 사람들을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국가와 체제는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자와 생산적인 노동자,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었다. 달리 말해, 피지배자들을 억압하는 대신 피지배자들이 통치

(지배)에 자연스럽게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때조차 체계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근대 권력의 핵심인 것이다.

Ⅲ. 푸코를 통해 영화 <완득이> 다시보기 :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주체화' 시키기

1. 푸코와 영화 <완득이> (I) : 주체를 객체화시키는 규율권력 비판

그럼, 이제 푸코의 관점에서 영화 <완득이>를 들여다보자. 영화의 시작은 척추장애를 가진 완득이 아빠가 나이트클럽에서 광대분장을 하고 춤을 추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나이트클럽에서의 생활은 어린 완득이의 성장공간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민구 삼촌도 그들과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완득이는 열여덟이 되고 공부는 못하지만 싸움만큼 누구 못지 않은 싸움꾼이 된다.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되자 아빠는 민구삼촌과 함께 시골 장터로 장사를 하러 나가고 아빠의 빈자리를 담임선생님이자 옆집 옥탑방 이웃인 '동주' 선생님이 대신한다. "엄마, 도완득!" 으로 시작하는 동주 선생님의 과도한(?) 관심 덕분에 완득이는 괴로워한다. 완득이의 단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은 "똥주" —극중 완득이가 담임선생님 동주를 부르는 별칭—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똥주" 덕분에 완득이는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다.

영화 <완득이>는 얼핏 보면 복지와 관련된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영화라고 하면 으레 도움을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컨대 쪽방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독지가와 복지관의 도움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을 연상한다. 그럼에도 영화 <완득이>는 영화 어디에서도 그런 대중의 익숙한 생각을 시각화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영화 <완득이>는 우리로 하여금 권력의 작동은 목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전술했듯이 클라이언트를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형상화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것을 주문하기 때문이다. 흔히 복지하면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들은 주류사회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 '클라이언트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주류사회는 미디어 따위를 통해 대중들이 클라이언트를 시혜의 대상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폭력과 같은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푸코의 말을 빌리자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클라이언트라는 (권리를 가진) 주체를 단순히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시혜적 존재, 즉 복지의 객체로만

인식해 왔음을 알게 된다. 즉 우리의 인식을 좌우했던 내면화된 권력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진정한 주체로 보는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2. 푸코와 영화 <완득이> (II) : 규율권력 비판과 임파워먼트(empowerment)

잠깐 다시 영화 <완득이>로 돌아가 보자. 학교 종례시간 동주선생님은 반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완득이에게 학교에서 나오는 수급품을 받아기라고 이야기 한다. 완득이는 이런 수급품을 받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동주선생님은 완득이의 수급품을 대신 받아 전해주며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며 말하고는 당당하게 “야! 햇반 하나만 줘봐” 라고 한다. 영화 후반부로 가게 되면 완득이는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고 이제 동주 선생님이 대신 받아가기 전에 완득이가 먼저 수급품을 찾아가게 된다.

“아버지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그렇게 되신 게 니 아버지 잘못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너한테 금칠은 못해줘도 너를 굶기기를 했어? 그리고 뭘 놔의 가난이 그렇게 쪽팔릴 여유가 있어? 나중에 나이 먹어봐야 그것 때문에 쪽 팔렸다는 게 그게 더 쪽 팔릴 거다.”

- 영화 <완득이> 중 담임선생 동주의 대사

위에서 그려진 모습은 클라이언트의 모습, 나아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가 기존 미디어에서와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존재했던 모습이 아니다. 즉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일방향적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다. 다만 클라이언트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방점을 찍고 있다.

푸코는 시민의 삶을 규율해 온 생명(관리)권력을 이야기하며 생명(관리)권력이 작용하는 사회구조인 감옥과 병원 등을 그 예로 제시한다. 이곳에서의 권력은 전문가주의(지식)에서 나온다. 일례로 국가의 일망감시법이라든지, 의사의 진단을 통한 환자로의 규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나 의사가 사회적 위계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회의 만들어진 구조와 위계질서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전문가는 우월한 사람이 된다. 전문가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이런 점에서 클라이언트는 이런 방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주는 방향성은 내 몸에 체화되어 있으며 나도 모르게 그 방향성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 예컨대 감옥에서의 간수나 의사가 죄수나 환자와 같은 사람들을 컨트롤 할 때에는 그들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이미 사회에서 충분히 구조화 된 것을 몸에 체화시키고 있다. 이런 구조가 구성되는 순간 인간세계가 이미 정해져버린다. 바로 이것이 푸코가 말한

권력인 것이다.

푸코의 관점을 통해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권력 작동 방식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다. 그들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이며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⁵⁾ 바로 이 둘 사이에 권력이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궁극적인 자립을 위하여 그들을 주체로 인정하는 접근방식, 즉 임파워먼트강점 부여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관계에서는 주체가 되어야 할 클라이언트가 철저하게 객체화되어 소외가 일어난다. 임파워먼트가 강조되기 이전은 푸코가 비판했던 근대적 위계성·계층성·속박성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위계화되고 차별적이며 수직적인 인간관계와 사회구조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속박을 당하는 을(乙)이 된다. 이는 푸코가 비판했던 근대의 모습이다.

탈근대가 시작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고가 진행된다. 탈근대적 관점에서 사회구조를 배제하고 본다면 의사나 환자 둘 중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의사 A가 의사 B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의사 B가 의사 A에게 환자라고 말하는 순간 의사인 A도 환자가 되는 것이다. 복지관에서의 상황을 푸코의 논의로 설명해보면 내가 복지관에 들어가 상담만 받아도 그 순간 나는 클라이언트가 된다. 만약 근대적 시각이라면 사회복지사는 나를 문제가 있거나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것이며 이미 자신의 개입이 필요한 사람이고 본다. 푸코는 이런 점을 비판한 것이다. 주체 대(對) 주체로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동등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잠재력 제고를 통한 진정한 자립은 푸코가 비판한 권력의 속성을 깬 때 일어난다. 즉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를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상정하지는 게 핵심인 것이다. 즉 근대적 합리성과 이성이 강조되며 위계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탈근대의 비이성적인 것의 인정과 수평적 인간관계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보자는 것이다.

동주 선생님이 완득이에게 수급품으로 받아온 햇반을 요구하는 모습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기존의 전문가주의적 접근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완득이를 '수급품을 받아 생활하는 불쌍한 아이'라고 인식했을 경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완득이 같은 클라이언트를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봤다. 즉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없으면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동주선생님은 가난을 부끄러워

5) 이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려지는 모습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KBS 1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서의 주인공은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거나 소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의 대상자인 클라이언트라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후반부에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후원을 통해 그들의 삶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복지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하는 완득이에게 위로 대신 엄청난 꾸중을 한다. 이는 클라이언트로서의 완득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임파워먼트는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역량을 강조한다. 임파워먼트는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전제한다.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주목한다. 동시에 클라이언트와의 동등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즉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우위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립을 돕는 것이 임파워먼트다.

영화의 후반부, 싸움을 잘하는 완득이는 킥복싱을 접하게 된다. 동주 선생님이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그곳에서 이주노동자를 만나게 된다. 그를 통해 완득이는 킥복싱을 시작하게 된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 마침내 대회까지 나갈 실력을 갖추게 된다. 영화는 대회를 준비하며 열심히 운동을 하는 완득이의 모습으로 끝이 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완득이의 자존감 회복과정에 그 어떤 강압적인 개입은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공간은 동주 선생님이 운영만 할 뿐이지 의무적·전문가주의적 프로그램이 없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 다니는 이주노동자(또 다른 클라이언트)를 통해 완득이는 또 한 번의 임파워먼트, 즉 클라이언트 상호간의 호혜적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게 된다.

3. 푸코와 영화 <완득이> (Ⅲ) : 다문화가족 - 인종과 빈곤을 통한 배제와 규율

영화 <완득이>의 감상평을 찾아보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다문화가족 영화’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영화 <완득이>에 나오는 다문화가족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 전면화된다.

“제 어머니예요.”

- 영화 <완득이> 중 완득이의 대사

영화에서 완득이는 어느 날 담임선생님 동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 아닌 필리핀 사람이라 한다.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가버린 어머니였기 때문에 살아계신다는 소식도 갑작스러웠지만 어머니가 이국(異國)사람이라는 것에도 놀란다. 어머니를 한번 뵈러 가보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에 고민 끝에 완득이는 어머니를 찾아가게 된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완득이에게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완득이는 어머니와 헤어지기 전 어머니의 낡은 신발을 보고 근처 신발가게로 들어가 어머니의 신발을 사 드린다. 이 둘의 관계를 물어보는 신발가게 아주머니에게 완득이는 어머니라고 말한다. 이후 완득이에 대한 어머니의 높임말이 어느새 사라지고, 영화의 말미에는 어머니를 포함한 온가족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그려

진다.

영화는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근대의 규율권력이 주체를 배제하고 규율했다는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푸코가 비판하는 그것의 모습을 띤다. 결혼이주여성으로 상징되는 다문화가족은 이해 받아야 하고 보듬어야 할 대상이자 약자로만 철저히 인식되고 수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문화가족 문제를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지배적 시각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접근법은 가난한 제3국에서 온 외국인 이주여성을 우리 한국문화에 철저히 동화시키고 포섭시키는 ‘주입식 동화정책’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한복 입는 법에서부터 설날에는 떡국을 끓이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명절아침에는 차례상을 차리고 김장철이 되면 김치를 담그는 법들을 가르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당당한 주체로 대접받아야 할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한국사회에 동화시켜야만 하는 그 ‘무엇’ (객체)로 치부한다. 그들이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무시한 채 우리의 것만 체화하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 같은 접근법이 서서히 ‘융화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기는 하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접근법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즉 다문화 이주여성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나라 문화체험’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그녀들이 느꼈던 한국사회에서의 이질감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텔레비전에서는 익숙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눈대중만으로도 김치를 담그는 다문화 이주여성의 모습을 칭찬하는 시어머니들의 모습을 반복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요컨대, 다문화 이주여성의 고국문화보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우월하기에 그들을 자연스레 규율하여 포섭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시각이 주류사회 기저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IV. 맺음말

이 외에도 영화 <완득이> 안에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의 일자리 문제, 학교폭력문제,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글은 복지철학적 주제, 특히 주체의 문제를 가지고 영화의 재해석을 시도했기 때문에 영화 속 소재들을 모두 언급하지는 않았다. 머리말에서도 밝혔지만 영화 <완득이>는 사회복지학적으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텍스트다. 특히 클라이언트를 ‘시혜의 대상’ (객체)이 아닌 ‘사회권의 소유자’ (주체)로 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복지 문제를 다루는 동시대의 텍스트의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복지 관련 대표적 텍스트로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원하면서 유명해진 KBS 프로그램 <동행>이 있다. 프로그램 <동행>은 복지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에 딱 좋은 텍스트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복지를 사회적 약자들의 것으로만 치부하는 기존의 가치체계를 온전히 대변한다. 화면 속에 비춰지는 클라이언트들은 우리사회의 따스한 온정과 손길에 굶주린 너무도 “딱한” 존재로만 그려진다. 그들을 주류사회의 ‘우리’와 동등한 주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미약하다. 이런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기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대표한다는 공영방송에서조차 클라이언트의 객체화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리고 아무런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 큰 문제다.

이런 문제를 막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대중매체에서 형상화하는 사회복지사(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의 모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영화 <완득이>에서 동주 선생님이 완득이에게 ‘흰 쌀밥’ 햇반 대신 당당하게 ‘잡곡’ 햇반을 원하는 그런 모습을 (다소 작위적이더라도) 그려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클라이언트를 복지의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이 자리할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사회권을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영화 <완득이>, 이한 감독 2011년 작.

양운덕 (2011). “생명(관리)권력과 생명정치,” 『진보평론』 47: 159-188.

____ (2003). 『미셸 푸코』. 서울: 살림.

조원광 (2012). “미셸 푸코 권력이론의 재조명,” 『경제와 사회』 94: 242-273.

Burchell, Graham et al. (eds.) (1991).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ucault, Michel (2003).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파주: 나남.

Irving, Allan (2012). “미셸 푸코,” in Mel Gray & Stephen A. Webb (eds.),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접근』, 김기덕 외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주체화와 영화 <완득이>”에 대한 토론문

[푸코의 주체와 주체로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융합 가능성]

조윤경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

1. 들어가며

발표문은 푸코의 감시체계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푸코의 이론은 사회학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학에서 가지고 있는데 공동저자 모두가 ‘사회학’ 과 ‘사회복지’ 라는 두 가지 학문 베이스를 가진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 결합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발표문은 학문간 경계를 허물고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는 한국융합인문학회의 시작을 알리는 본 창립학회의 발표문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본 토론문에서는 글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고려될 만한 몇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

2. 제안점

1) 클라이언트의 주체 vs 근대적 인간으로서 주체

발표문에서는 푸코의 관점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권력작용 방식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시혜적 존재이며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이러한 불평등함 속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권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완득이의 동주 선생님은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임파워먼트를 통해 완득이의 주체성을 강화 시킨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문에서 임파워먼트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권력작용 방식을 해체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현장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찾는 클라이언트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된 사람들이다. 학력도 낮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며, 사회적 관계망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정서적으로도 성공의 기회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임파워먼트 전략은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사회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개인별지원계획(사례관리)이 강조 되면서 개인의 욕구와 그들에 대한 존중이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강화되는 등 클라이언트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체성이 강조되더라도 푸코의 관점에서 이들이 해방될 수 있는 가 는 좀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푸코가 말하는 근대적 주체는 근대 특유의 산물이다. 즉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근대를 규정하기 보다는 근대에 발생하는 우연적 인식체계(에피스테메)와 권력의 작용에 의해 주체가 구성된다. 학교, 군대, 감옥과 같이 성적, 계급을 통해 개인을 분리하고 교사, 장교, 간수가 학생, 군인, 죄수를 감시하는 체계 안에서 근대적인 질서를 몸으로 체화하는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푸코의 권력개념은 맑스가 자본의 소유여부를 권력의 원천으로 지목 하여 권력의 형태가 매우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푸코의 권력은 몸에 체화된 생체 권력으로서 푸코의 권력은 실체도 없고 따라서 저항의 대상도 불투명하게 된다. 푸코의 논의를 해방의 가능성 보다는 근대라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은 그의 논의에서 권력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미시권력만이 강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주와 완득이의 관계가 기존의 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넘어서 평등한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대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생체 권력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완득이가 임파워먼트 되어 자존감을 회복했다라도 완득이는 여전히 주체를 노동자로서 만들고 학생으로 만드는 근대적 질서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2) 클라이언트의 근대성 구현의 욕망 vs 클라이언트의 해방적 주체로서의 가능성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경우 푸코가 말하는 근대적 주체에서의 해방보다는 오히려 근대적 주체가 되기를 희망한다는데 있다. 양운덕 교수는 푸코의 근대적 감시체계를 공장에 비유

하면서 근대라는 공장은 유용한 지식을 갖춘 학생을 생산하는 학교, 환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병원, 일정한 개인들을 전투력을 갖춘 군인을 만들려는 근대라고 말하고 있다. 푸코를 해방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기존의 교육체계에 대해 저항하고 대체의학을 선호하며 근대라는 위계적 질서를 거부할 때 해방의 출구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양윤덕, 1997).

그러나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오히려 근대적 주체가 되고자 한다. 이들은 좋은 노동자가 되고 싶어하고, 좋은 학생이 되고자 하며,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등 비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정상화된 경로를 추구한다.(심지어는 다시 끌려가는 꿈을 꾸는 군대를 가는 일인데도 장애인들은 군대를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훼손으로 이해를 한다.) 즉 클라이언트들은 근대적 주체에 대한 해방보다는 오히려 근대적 주체가 되고자 한다. 따라서 푸코의 논의가 미시 권력에 천착하다보니 근대적 질서 안에 있는 제도적 불평등을 간과했다는 점이 비판을 받는 것의 연장선에서 근대적 주체적 개념으로 클라이언트를 분석할 때는 그들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가 동시에 고려될만하다.

3)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사이의 평등 vs 불평등

발표문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평등한 관계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토론자 역시 클라이언트와의 평등한 관계의 구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 토론자는 권력의 불평등성에 기초하여 평등성을 고민하는 다소 아이러니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큰 힘을 가지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경험도 많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기관 조사자들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비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이러한 현실적 역학관계를 부정하고 평등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러한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한하려 한다.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가진 자원을 조력자를 임파워먼트하고, 자기 결정을 도우고, 지역자원과 연계하는데 자신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의 사용이 권력을 지향하기 보다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가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내견이 필요하듯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도구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힘에 대한 부정보다는 힘을 사용하는 방향과 지향점이 고민하는 방식으로 평등성에 대한 고민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나오면서

푸코의 근대적 질서에 대한 비판은 맑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을 통해 전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근대적 질서는 나쁘고 해체해야 하는 질서라기보다는 푸코의 작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의 사회적 조건을 설명하는 데에 놓였다. 완득이가 클라이언트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한다하더라도 여전히 근대적 질서 안에 갇힌 베버적으로 말하면 ‘철장 안에 새’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푸코의 작업은 좀 더 해방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가상세계에서의 편안함을 버리고 매트릭스 세계를 대면했던 것처럼 푸코의 작업은 현재를 비판하고 낯설게 보기를 통해 실천의 발판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발표문에서도 클라이언트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클라이언트의 해방의 출구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토론자는 다시 한 번 발표문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양운덕(1997). “푸코의 계보학,” 『경제와 사회』 통권 35호(가을호).

한국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안*

-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

이장욱**

I. 서론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사회적·환경적 변화와 발전, 의학의 발전, 향상된 식생활 등과 같은 건강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12월 기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3%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보건복지부, 2010).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는 오는 2030년쯤으로 예상된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성은 그 진행 속도에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정도를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고령화 진행속도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프랑스의 경우 115년, 미국 73년, 이탈리아 61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 소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18년에 불과한 것을 보면, 초고속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상황이다(성명기, 2006: 21-22).

프랑스·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과 미주국가는 1940년대를 전후해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일

* 이 글은 필자의 학위논문 「한국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안」(고려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년 2월)에 기초한 것임을 밝힌다.

** 충청대 사회복지학부 강사. leejanguk@hanmail.net

본은 1970년대에 고령화사회가 됐다. 고령사회에 있어서도 스웨덴·영국·독일·프랑스·덴마크는 1970년대, 이탈리아·스위스는 1980년대, 일본·그리스는 199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최소 24년에서 115년 정도 걸리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20년도 채 못 미치는 기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되었고, 심지어 그 기간마저도 최근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이전 변화기간보다 짧아지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39년과 37년에 걸쳐 진행되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21년과 12년이지만 한국은 8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 캐나다, 호주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1940년대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고령사회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하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가 젊은 계층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세계경제가 성장을 계속하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노인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복지대책을 개선하는데 차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 4. 8.부터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를 두고 대비책 강구에 나섰다. 위원회가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이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원인이지만, 이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을 더욱 심화시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을 사회에 미치게 된다. 노년부양비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노인인구의 사회적, 육체적 특성에 따라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를 낳는다. 다시 말해 인구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의 증가, 국가경제성장률의 둔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의 적정한 공급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경제적위기로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먼저 노인부양비와 경제활동 인구 총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적 어려움 역시 증대될 뿐만 아니라 연금체계 유지도 어려워 질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시설인프라 구축과 재가서비스를 위한 각종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국민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가경제 성장률의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대하게 되면 전체적인 취업구조가 노령화되기 마련이다. 노령화가 높은 집단은 노령

화가 낮은 집단에 비해 동일 조건 하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비근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투자가 위축되고 비생산적인 부문에의 자원투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의 증대는 경제성장률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유·소년부양비와 달리 사회·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사회·경제적 투자가 제약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공적 부양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경우 이는 개별가족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핵가족화, 산업화 등으로 말미암아 약화된 가족부양의식은 노인에게 대한 가족의 부양회피로 연결되는 경우를 증가시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사회적 위기로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복지수요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다양화에 대한 욕구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는 개인들의 가치관, 가족적 배경, 소득수준, 생활양식, 사회적 경험 등을 다양하게 형성한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들 또한 내부적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집단을 형성하는 만큼 그들의 요구체계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다양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의 진행은 급속한 출산율의 저하와 국민 보건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온 서구유럽국가 및 일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에 그동안 매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수준 가운데에서도 노인복지수준은 특히 미흡한 편이다. 예를 들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도입초기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복지체계 역시 저소득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장 위주의 단순한 구조에 머물러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부양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분명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조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사회와 달리 노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사회경제적 가치배분과정에서의 소외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의 노인부양의식은 저하되고 있는 반면 노인부양의 사회적 역할 증대 압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II. 복지국가의 변동과 노인복지정책의 개혁

탈산업화 이전의 복지국가는 임금노동 중심적인 정규직 남성 위주의 완전고용과 국가, 가족, 개인, 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사회보장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중심축은 전후 경제 성장과 유효수요창출에 의해 1960~1970년대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의 복지국가 황금기를 맞이하였으나, 70년대 중반 이래로 2번의 오일쇼크, 점증하는 시장개방과 경쟁, 증대되는 복지예산, 실업 등의 대내외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는, 한편으로는 영미의 민영화, 유연화, 복지급여의 축소 및 탈규제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시민주의적 사회적 합의주의 전통의 고수 하에 일정부분 복지급여의 축소 및 복지예산의 조정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새롭게 집권한 유럽의 좌파정당은 신중도 시민주의 노선으로 제 3의 길인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기존의 복지국가(기든스의 용어로 고전적인 시민주의)는 시장경제를 불평등을 양산하는 기제로 인식하여, 시장으로부터 탈락한 질병·폐질, 실업, 노후 시에 경제적인 생계보장을 통한 재분배인 거의 이차적인 것에 이해와 관심이 있었다. 국가의 시장개입주의 전략과 완전고용, 소득보장, 재분배 및 사회적 권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전통적인 시민주의 전략이었다. 전통적인 케인즈식 복지국가가 소득보장을 제도화하여 시장의 수요를 자극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했다면, 사회투자국가는 시장의 공급측면과 연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이다. 90년대 이래의 이와 같은 복지국가의 변화를 두고, 제스(Jessop)은 기존의 케인즈식 복지국가에서 새로운 자본축적체제에 적합한 사회적 조절양식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이 결합된 슈페터리언 근로복지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의 전환이라 칭하였다(Jessop 1993). 또한 길버트는 이러한 국가를 능력부여국가(enabling state)라 명명하였다(Gilbert and Gilbert 2001).

제 3의 길에서 새로운 정치란, 기존에 위에서 아래로의 사후적인 소득재분배 즉, 소득이전을 통한 사후적 결과의 평등보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회의 평등으로 직업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추구한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소득보장보다는 노동을 통해 개인의 안정감, 삶의 비전, 전체사회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제 3의 길이 광범위한 탈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복지지출은 미국 수준이 아닌 유럽 수준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대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병행으로 가족친화적인 일자리의 확대, 제 3섹터에서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한 지역과 중앙, 민관의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평생 교육, 공공 프로젝트에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 반생산적 이지 않은 노동의 재분배, 명예직과 자발적인 봉사에 대한 국가적인 세제와 수입의 지원 등이 주요 정책 내용이다. 실업보험, 연금, 산재보험 등의 정책으로 실업자들을 노동시장 밖으로 퇴출시키는 대신 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등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고용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Giddens 1999: 78-83, 114-144). 복지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와 시장개방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의 생산적투자적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투자국가를 옹호하는 논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사민주의 사회투자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은 전통적인 복지국가로부터 이탈이 아닌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로서 복지 프로그램 및 급여 전달방식의 형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수준이고 고령화의 속도도 빠르다. 지금의 경제개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고용 및 인적 자원 친화적이며 예방적인 사회정책 패키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회적 보호체계, 고용의 양의 확대와 질의 보장,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타협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투자국가의 핵심과제가 노인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노인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한다. 또한 노인들의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일자리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양도 중요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고용의 질이 낮으면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의 수준 역시 하락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대두된 복지다원주의가 추구하는 능력개발국가 모형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인책임의 유인기제이다. 즉 복지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자기책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전통적 복지국가들은 여러 유형의 사회복지정책을 주로 사회보호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모형은 사회복지정책을 사적 책임을 위해서 공적 지원의 바탕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능력개발국가는 “권한부여를 통한 능력개발”, “민영화”, “책임” 이라는 용어로 상징된다. 따라서 사회보호에 대한 이러한 접근의 지배적 원리는 “사적책임을 위한 공적 지원” (public support for private responsibility)으로 요약된다(Gilbert and Gilbert, 1989). 그러나 시민과 비정부조직에 의한 사적 노력과 책임에 대한 관심은 능력개발국가를 전통적 복지국가와 구별하는 개념과 선호라는 더 큰 토대 속에서 구현된 것이다.

사회보호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능력개발국가는 복지국가와 몇 가지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경향을 가진다. 사회보호에 대한 대안적 모형의 특징은 중복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경향성으로 표현된다. 복지국가와 능력개발국가는 둘다 직·간접적 지출에 의해 재정이 조달되고, 공적 또는 사적 수단을 통하여 전달되는 현금과 서비스의 형태로 이전됨으로써 사회권을 배분한

다. 또한 복지국가와 능력개발국가 모두 평등과 공평을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소비와 투자를 위한 복지급여로 개인과 가족단위를 지원하는 사회정책을 형성해 낸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각 변수가 아니라면, 복지국가와 능력개발국가는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발전해 간다. 능력개발국가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보호제도가 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증거가 많이 있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본다.

능력개발국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Gilbert, 1989). 우선 국가는 복지 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해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들의 복지 수급에 제한을 가하거나 근로 동기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시행한다. 다음에 복지 공급에서 민영 부문의 역할이 증대된다. 여기에는 전달체계의 민영화라든가 현금급여와 바우처(voucher)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보편주의를 포기하고 선별주의에 기초하며, 복지 급여는 시민권이 아니라 이해 보유자들의 회원권에 기초하여 제공된다.¹⁾

길버트(Gilbert)에 따르면, 능력개발국가는 기존의 복지국가와 비교할 때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일 뿐 아니라 그 개입의 형태도 크게 변화시키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의 확대는 시장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능력개발국가는 하나의 형태로 수렴되지는 않으며, 각 국가의 역사적·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앵글로색슨형이나 스칸디나비아형 등의 몇 가지 변종이 가능하다고 본다.

복지국가의 미래를 능력개발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전망하는 길버트의 핵심적인 관심들 가운데 하나는 사회통합의 기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통합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수많은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길버트도 뒤르켐(Durkheim)의 이론과 개념에 의존하여 복지국가의 형태 변화에 따른 사회통합 기반의 전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들이 시민권을 기초로 하여 국가에 대해 복지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나 국가개입주의의 약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능력개발국가의 대두와 더불어 시민권에 기초한 복지제공의 여지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로서 복지부문에서는 시장과 자원단체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게 되며 이것은 곧 기존의 사회연대성(social solidarity)이 붕괴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길버트는 뒤르켐이 근대사회에서 유기적 연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기제로 간주하였던 직업집단의 역할에 관심을 가진다. 뒤르켐이 근대사회에서의 연대성 확보를 위해서 직업집단을 중시한 이유는 전통사회의 주요 집단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지는 가운데 국가라고 하는 근대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집단은 개인들을 충분히 구속하고 교육시킬 만큼 그들에게 가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분업의 확대에 따라 분산된

1) 여기서 회원권(membership)이란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이 정서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는 비공식 집단, 노동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자원단체,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 보험들, 그리고 현금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보험집단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혹은 수급 자격을 의미한다.

개인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회연대성을 배양할 수 있는 존재로서 국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현실적인 직업집단의 위상이 부각되게 된 것이다.²⁾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길버트는 복지다원주의의 확대에 따라 사회통합의 기초가 국가로부터 민간시장 및 시민사회, 특히 자원단체와 비공식네트워크(가족 및 친지, 지역사회)로 이동하고 있다고 본다.

Ⅲ.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한국도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문제는 저소득층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바탕을 둔 정책

이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의 틀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본다.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과학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인 대다수의 생계문제와 질병 등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바탕을 두고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이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은 고령사회가 되는 시점에서 보아야 옳다. 또한 노인복지정책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와 건강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해주어야 하겠으며 반대로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활력있는 노년기를 보내려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여가활동

2) 이러한 뒤르케임의 논지를 토대로 길버트는 보편주의적 성격의 복지국가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국가를 매개로 한 사회연대성이 약화되는 반면에 국가개입주의의 약화와 동전의 양면의 관계에 있는 복지다원주의의 확대는 비영리 자원단체의 상대적 활성화와 집단의 회원권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연대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 틀을 형성하고 있다.

및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고, 건강하지 못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다양한 유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점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우선 순위는 역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보호대상 노인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보편적 차원에서 전체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복지정책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노인의 최저생활보장 및 최소한의 보건·의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표 1〉 노인의 특성에 따른 정책 방안

노인특성 및 욕구	건강한 노인		건강하지 못한 노인	
	저소득층 노인	중산층이상 노인	저소득층 노인	중산층이상 노인
	↓	↓	↓	↓
정책방안	취업기회 제공	여가활동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 기회 제공	공공부조혜택 및 무료보건복지· 의료서비스의 내실화	유료보건복지·의 료서비스의 확충 및 다양화

*자료 : 이강욱, “노인복지정책과 향후 발전방안,” 『미래사회와 노후생활』.

2) 역할분담과 사회적 연대

노인복지의 국가만의 책임으로 미뤄둘 수는 없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아래 전체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초적 욕구의 충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노인의 부가적 욕구,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최저기준 이상의 욕구충족은 민간 기업체 등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재정 및 인력부족으로 말미암아 노인의 기초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시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강욱 교수가 주장하는 ‘민간부문 사

업자가 비영리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적 욕구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와 민간의 공동체적 노력은 '효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날의 사회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던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보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재원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최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감에 따라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에 많은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원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대안들은 탁상공론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원조달 방안은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정부와 민간의 노인복지 역할분담의 기본전제

목 표	최저생활보장	다양한 욕구충족
	↑	↑
욕 구	기초적 욕구	부가적 욕구
내 용	- 사회최저기준 이하의 욕구 - 전체노인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보편적 욕구	- 사회적 최저기준 이상의 욕구
	↑	↑
공급주체	공공부문(민간부문)	민간부문
성 격	비영리사업	영리실버산업

*자료 : 이장욱, “노인복지정책과 향후 발전방안,” 『미래사회와 노후생활』.

(1) 노인복지 예산수준의 향상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구조가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노인들은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그들의 노후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노인빈곤의 원인은 사회변동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는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복지비는 국가예산 대비 10.0%에서 20.0%선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2009년도 노인복지비는 3조 1,573억원으로 국가예산(301조 8천억원) 대비 1.05%에 머무르고 있다. 이정도 수준으로는 경로효친 사상의 나라로 자부할 수 없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노인들 중 대부분이 사회보장제도의 중심기능인 국민연금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핵가족 현상으로 자녀들로부터도 제대로 생계지원도 받지 못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 비율이 전체노인의 40.0%선을 웃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이른바 IMF 경제난국에 봉착한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생존권 차원의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 참여

국민의 기초적 욕구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실재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에 의한 최저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는 민간기업 또는 종교단체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적극 장려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한 노인복지사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효’의 실천 차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기업체마다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노인복지기금으로 모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면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모금방법을 구상하여 사회복지모금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사회와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7.6%에 이르고 있어 그 기간이 짧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도 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인 지원·보상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자원봉사자와 그에 따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지원·보상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소득보장 정책의 발전방안

한국은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으로 향후 도래할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연금제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후소득원을 다양화해야 할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 잡힌 발전을 바탕으로 한 다층소득보장체계가 이루어지고, 고령자의 고용여건 개선과 퇴직연령 연장 등을 통해 부담자와 수급자의 불균형

을 해소함으로써 연금재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민연금제도 확충

(1) 연금의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다.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관한 보고서는 국민의 불신을 가져온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9%를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인상하여 2030년에는 15.9%로 인상하는 반면,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은 현행 60%에서 50%로 감소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15.9%의 보험료율은 15%로 낮춰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애초에 국민 연금제도는 3%의 보험료율로 시작해서 현재는 9%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 비해 보험료율이 3배나 올랐는데 보험료율의 상승과 소득대체율의 인하만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불신 심화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에 대한 점진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이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연금 수준을 계산해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 소득이전을 하려는 소득재분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하향 소득신고가 개선되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은 저수준의 연금급여로 수렴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결국 소득과약율과 소득형태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아 4대 사회보험을 관장하는 별도의 가칭 사회보장청 등의 기구설립을 통해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국민연금기금 운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재정 고갈에 대한 자료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으며 국민의 불신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금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운영 전 부분에 걸

친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연금기금 운영상의 효율적인 기금운동을 위해서 첫째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운영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향후 기금운영에 ‘피드백’ 이 되어 반영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현세대와 다음세대 간 형평성 제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현세대와 다음세대 간 부담과 혜택 문제에 있어서도 불균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 관련 개선안들이 공통적으로 다음세대로 갈수록 연금에 대한 부담, 즉 의무는 늘어나고 연금에 대한 혜택이나 권리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미래세대로 과도한 보험료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제도가 기본적으로 미래세대에서 현세대로의 소득이전을 전제하고는 있지만 현 국민연금제도는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세대는 연금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반면, 미래세대는 연금이 오히려 수직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것은 미래세대의 연금가입 거부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며, 그 결과는 연금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인구 고령화에 따른 후세대 부담의 경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만드는 현 연금제도를 개편하여 세대 간 소득이전 구조의 탄력성을 높이지 않고, 세대 간 부담과 혜택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방지한다면 연금제도 자체의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더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범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2) 기초노령연금의 내실화

한국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중풍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죽음을 맞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노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공적부조제도의 역할 제고를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³⁾에 대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행기초노령연금 수급범위를 재검토, 내실화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재량권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선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는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 중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등에 투입된 행정력과 실제 복지서비스 혜택에 대한 비용편익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기준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목적하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목적에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급여수준 또한 현실화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확대 개편된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지속되어야 한다.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이후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공적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대상도 아닌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영구적인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재편되어야 한다.

3) 기초생활보장 확충

전 국민의 사회보험의 실현과 적정급여 제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를 확대하며 그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편입, 보호하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주거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및 긴급급여 등을 제공하여 기본욕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여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 훈련을 통해 능력개발이 보장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자활, 자립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모두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야한다. 가구규모별, 지역별, 가구특성별(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3)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작은 6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를 구축하여 소득, 재산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전산망과 토지, 건물, 국세 등 관련 전산망과 연계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복지대상자가 100가구당 사회복지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고 있다.

셋째, 오늘의 우리사회는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이 드물다. 이는 현대인의

‘효’ 정신의 퇴색과 생계의 문제가 부모를 부양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 부모 부양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에게 부양의무를 지게 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노인고용정책 활성화

국가 경제 발전이 지속가능하도록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에 대비한 체계적인 노인인력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고용정책이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노인부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노후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 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고용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년제도의 개선과 노인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 보급하여 우선 채용 직종이 되도록 제도화한다. 한국 기업의 상당수가 연봉제를 통한 성과급 위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연봉서열에 기초한 임금체계는 능력과는 무관하게 임금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들로 하여금 고령 인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안게 하고 있다. 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부담을 줄임으로써 고령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는 정년이전 50대 중년계층을 대상으로 기업 내 창업지원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적합한 직종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이를 법제화한다.

둘째는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한국은 노인 취업프로그램으로 노인취업 알선센터,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노동부 등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서로 간에 연계성의 부족으로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그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일관된 고용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고령자 취업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희망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

하기 이전에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의 효율성을 제고

시킴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된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특히 특정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장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는 고령자들의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력직종지위별로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퇴직 전 전문성과 직위가 매우 높아 직업훈련 없이도 고령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령자 사업전개가 고령자인력지원 기관에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고령자 우선채용직종은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아닌 단순노무적인 분야나 너무 고차원적인 전문 직종으로 구성되어 실제로 일반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 직종은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종의 수에 있어서도 한국은 조기 정년과 근무연장이나 재고용의 부진 등 노인취업여건이 상당히 나빠서 노인 적합 직종 개발실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좋은 영국(400여종)이나 미국(130여종)보다 훨씬 적은 77종이며, 그 개발 또한 노동부에서 고령자인재은행 등 비전문 산하기관의 개발보고를 받으며 관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연륜이나 경험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문사무직 고령자들의 취업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 요약 및 함의

노인복지정책의 전략은 대체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보장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등 사회적·심리적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완벽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선진국에서는 연금과보건의료면에서 가중되고 있는 사회, 가족 및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령화를 단절적인 인생의 주기로 보지 않고 생애 주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유아기 때부터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차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국가와 개인 그리고 공사적 영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스스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급속도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국가적 노후대책이 없는 고령인구를 증가시켜왔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의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자녀들의 부양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오늘날 핵가족화,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변화, 기타 사회적인 여건변화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에

게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 이라는 4고를 가져왔다. 앞으로 국제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이 계속되면서 4고속에 살아가는 노인의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 욕구 또한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향후 노인 복지정책의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노인의 복지정책을 제정 하고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고 보장하는 국가 사회복지제도의 현실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복지제도 중 변화가 필요한 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어 노인복지에 대해 최저 기본선을 제정하며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기존의 노인복지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였으며, 보장성 또한 높지 않은 상황이다. 사각지대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실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이르는 현실적인 개편방안을 제안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 제도별 지속가능성과 전체노인복지 제도의 지속적이고 차별 없는 정책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육상(2005). 『최신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김익균(2002).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김화중(2005). 『한국보건복지정책론』. 수문사.
 박용순(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성규탁(2003).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장인협·최성재(2003). 『노인복지론』. 서울대출판부.
 정옥분(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2. 논문

- 손현순(2007).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연용(2007).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희진(2009).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연구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차형호(2006).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3. 국외문헌

- Gate, B. (1980). *Social Program Administra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Decision Makers Guide*, Volume14, State Pension Credit,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4). *Living in Britain: Results from the 2002 General Household Survey*.
 Twigg, J. (1999). "Social Care", in Baldock, J, Manning, N, Miller, S. and Vickerstaff, S. (eds.), *Social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 정기간행물 및 기타

- 성명기(2006).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연구 제2호.
 이가옥(2009). “노인복지정책과 향후 발전방안,” 『미래사회와 노후생활』, 국회예산처.
 전병목(2003).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방안,” 『재정포럼』 7월호 : 16-33, 한국조세연구원.
 정동근(2000). “정부의 역할과 NGO의 기능,”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5.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www.nps.or.kr>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 <http://www.nab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w.go.kr/>
 통계청 홈페이지 - <http://www.kostat.go.kr/>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kig.or.kr>

“한국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박승민 / 고려대 사회학과 외래교수

〈 총 평 〉

이 논문은 유엔 인구 연감 보고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최소 2060년 까지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민해야 하는 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있고, 특히 고령화 속도에 있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상황에 주목하고 있어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다. 더욱이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소득보장정책을 다룸으로써 한국 노인들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매년 건강 문제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연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토론자 제안 〉

● 논문의 구조적 측면

1. 서론 부분

서론에서 연구 질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저자가 서론에서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 현상, 그것의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충격들을 설명한 것을 근거로 인구 고령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 문제 혹은 연구 관심을 불러일으키는지 논리적 흐름을 따라 제시해야

한다.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논문은 ‘소득 보장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인구 고령화와 소득 보장 정책과의 논리적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즉, 첫 한 두 단락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을 하는 것으로 할애해도 되나 가능하면 논문의 시야를 저자가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논문에서 주장 혹은 밝히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두 문장으로 제시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이후 그러한 Research Puzzle을 풀어 낼 수 있는, 분석 가능한 구체적 연구 질문들을 제시하면서 본론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서론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2. 복지국가의 변동과 노인 복지정책의 개혁 부분

이 부분에서 상당한 문헌 고찰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논문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굳이 이 부분을 논문에 추가를 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학술 논문은 저자의 논지를 최대한 압축적이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 논의들을 주로 문헌 고찰 부분에서 정리를 한다. 그런데 이때 정리란 저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과 관련된’ 선행 연구나 이론적 논의들을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논문의 본문과 연결을 시켜’ 논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자가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구 복지국가의 거시적 변동의 일반적인 내용을 한 두 문장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한 변화가 노인 복지정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후에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인 소득 보장 정책’과 연결을 시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하면서 축소된 복지국가의 역할과 사회 투자국가의 영향 그리고 복지혼합이라는 거대 담론들이 노인 소득 보장 정책에 어떠한 굴곡을 가져왔고 그러한 서구의 경험이 한국의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본 논문에서 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지도 반드시 함께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그러한 일반적 논의와 한국의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II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한국에만 초점을 맞춰 한국 노인들의 소득 보장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이 가진 한계를 비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인 부양이 가족 내에서 이뤄져왔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믿어져왔다. 즉, 그동안 한국 노인들은 자녀나 친척과 같이 가족 내에서 이뤄진 사적 이전 소득에만 의존해 왔고, 국가의 소득 보장 정책은 일천했다. 그러한 전통

적 소득 보장 모델이 근대화 이후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점 등을 논거하면서 III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다.

3.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부분

현재 논문의 구성상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론 부분에서 현재 한국의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의 문제점을 먼저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따로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II 부분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한국 노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사적 고찰을 비판 내용과 연결시켜서 제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부분은 결론의 첫 부분에서 간략히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2. 소득보장 정책의 발전방안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현재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교과서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비판적으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 노인들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사각 지대는 없는지, 두 연금 제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과연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왜,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지닌 제도적 한계는 없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적이고 경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논문이 의도한 '발전 방안' 이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단순한 선언적 방향 설정은 정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확충에 관한 내용도 지금 보다 더 압축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한 내용들 중 본 논문과 무관한 것들이 상당히 있으므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노인고용정책 활성화 부분의 경우 노인의 고용이 소득 보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현재 언급된 내용으로는 부족하다. 혹자는 이 부분을 노인 고용 부분으로 오인하고 왜 소득 보장을 다루는 논문에서 고용 문제를 언급하는지 오인할 소지가 크다. 노인의 고용 문제가 건강, 소득 보장과 더불어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로 다뤄질 정도로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 결론 부분

현재 결론 부분은 본 논문의 목적과 거의 부합하지 않고 앞부분과 연결이 되지 않으므로 새롭

게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앞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시킬 때에는 연구 목적과 질문, 방법론 등 꼭 필요한 내용만 아주 간략하게 상기 시키는 것으로 제한하고 대부분을 해당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점들을 기존 논의와 연결시켜서 토론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의미를 저자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본 논문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정책적 성격을 띠는 학술 논문의 경우 논리적인 정책 제안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이때 그것이 선언적 내용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방안을 본 논문의 본론 부분에서 발견한 새로운 내용을 기반으로 ‘그 안에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 보고서가 아닌 학술 논문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노인의 소득 보장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논의, 선행 연구와 연결시켜 정책 보고서와 차별성을 갖고 학술성을 확보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구체적 사안들

논문이 전체적으로 많이 다듬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락 구성도 미비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문장들이 상당하며,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도 많다. 자료를 제시한 문장에는 참고 문헌을 인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향은 논문의 모든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서론 부분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락: 저자가 언급한 고령화의 원인은 노인의 평균 수명이 증가한 요인이다. 고령화는 그러한 평균 수명의 증가에 저출산 현상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 중론이다. 특히 이 내용은 아홉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저자 스스로도 모순이므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은 오류다. 한국은 아직 초고령사회가 아니다.

일곱 번째 단락: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원인들 중 일부분일 뿐 그것들만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아니다.

열 번째 단락: 노인 부양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유소년 부양비도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 용어 통일 문제(예: 고령화와 노령화 혼용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